MARKET OUTLOOK

2025년 펀드시장 정리 및 2026년 전망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oh.gwang-young@shinyoung.com

2025년 국내 펀드시장은 1) 국내외 증시 강세 속에 투자 자금이 ETF를 중심으로 유입되어 국내외 주식형 펀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편리성과 투자매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채권형 ETF의 증가세가 지속됨. 3)시중 유동성이 MMF로 몰렸으며, 4)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퇴직연금 펀드, 배당주 펀드, Gold 펀드 등도 증가함. 5)온라인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펀드 투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등의 특징을 보임. 2026년에는 1)다양한 신상품 출시 등으로 ETF는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2)연금 시장의 성장과 함께 관련 펀드(TDF, EMP 등)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3)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코드 개정과 이행점검 도입시 국내 배당주 펀드와 ESG펀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전환형 펀드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4)사모 펀드와 해외 펀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체투자 영역 보다는 주식형, 재간접형, 채권형, 혼합자산형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5)정부 정책 관련 상품과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신영증권

Content

I. 2025년 국내 펀드시장 결산 3

1. 전년말 대비 23.5% 성장한 국내 펀드시장 3
2.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 7
3. 세부 유형별 펀드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8
4. 국내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10
5. 해외 펀드 지역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12
6. 해외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14
7. 신규 펀드 설정 현황 및 주요 신규 공모형 펀드 17

II. 2025년 펀드시장 정리 및 2026년 전망 21

1. 2025년 펀드시장의 특징 21
2. 2026년 펀드시장 전망 33

2025년 펀드시장 정리 및 2026년 전망

분석의 기본 가정

-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상황에서 시장금리의 반등 경계 필요
- 새로운 연준 의장 및 FED 정책에 따라 금리 방향과 속도 변화 크게 나타날 것

2025년 국내 펀드시장 결산

(1) 전년말 대비 23.5% 성장한 국내 펀드시장

전체 시장 규모: 연초 이후 246.2조 증가하여 전년말 대비 23.5% 성장한 1,292.1조 기록

국내 집합투자증권(=펀드)시장 전체 설정원본(=설정액)은 연초 이후 모든 유형이 증가를 보인 가운데 특히 채권형, MMF, 주식형 등의 유형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인 영향으로 총 246조 1,853억 증가하여 전년말 대비 23.5% 성장한 약 1,292.1조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에만 투자하는 펀드는 835조, 해외 투자 펀드 규모는 457조로 국내 펀드 : 해외 펀드 = 64.6% : 35.4%로 MMF, 채권형 등을 중심으로 국내 펀드가 증가하여 전년 말 대비 국내 펀드 비중이 0.3% 확대됐다.

MMF 설정액: 새해 들어 연초 자금 및 시중 유동성 등 대규모 자금이 유입됨. 이후 계절성을 보이면서 매분기말 크게 자금이 유출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결국 11월말 기준 전년말 대비 46.2조 증가한 213.2조로 마감했으며 YoY로는 +9.0% 증가함

MMF설정액은 올해도 월초 또는 분기초에는 법인 자금 및 시중 여유자금 유입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되고 이후 월말 또는 분기말에는 법인 자금 수요와 월말 또는 분기말 자금 수요 등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계절성을 보였다. 지난 해 연간 기준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MMF설정액은 새해 들어 연초 자금 유입과 시중 유동성, 투자 대기 자금 등이 유입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채권시장의 영향과 분기말 자금 수요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어 3월말 기준으로 190조대가 붕괴되기도 했으며, 9월말 기준으로는 200조 대가 붕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결국 연초 이후 46.2조 증가한 213.2조를 기록하며 올해 국내 펀드시장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YoY) +9.0%을 기록한 것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3월, 6월, 9월 등 매 분기말을 제외하고 매월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8월 들어서 한때 사상 최대 규모인 233.8조 대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8월말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YoY) +15.2% 증가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채권형 펀드 설정액: 채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다양한 신규 상품 등으로 국내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47.9조 증가한 207.2조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사상 처음으로 200조 대를 돌파함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채권형 ETF와 초단기 채권형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증가세를 이어 갔다. 이에 주로 국내 펀드를 중심으로 47조 8,857억 증가한 207.2조 대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사상 처음으로 200조 대를 돌파했다. 지난 2023년 높아진 채권 금리의 절대 레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투자 수단의 하나로서 확고히 자리 잡는 모습을 보이며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형 설정액: 월간 기준으로는 5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규모는 184.6조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으로 신규 투자 자금이 유입이 둔화되어 전년말 대비 14.5조 증가에 그치며 2010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8.5%의 성장률 기록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 기존 성장 궤도로의 회복이 기대되었던 부동산형과 특별자산형은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및 대체투자 시장을 둘러싼 우려 지속으로 코로나 이전 성장 궤도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부동산형 펀드의 경우 월간 기준으로는 5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규모는 184.6조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으나 국내외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 등으로 신규 투자 자금이 유입이 둔화되어 전년말 대비 14.5조 증가에 그쳤다. 1월~11월 성장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 +8.5%를 기록하며 2010년 이후 가장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던 지난 해의 +8.2%보다는 나아졌지만 +20% 이상의 높은 성장을 보였던 코로나 시기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특별자산형 펀드도 전년 말 대비 +4.4% 증가한 157.9조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으나 월별 설정액 증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 4개월이나 감소세를 보여 한 해 동안 6.7조 증가에 그쳤다. 이는 1월~11월 성장률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던 지난 해의 +3.4% 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2010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혼합자산형 펀드는 올해 들어서는 약 14.4조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인 84.7조를 기록했다. 또한 월간 기준으로는 매월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4년 10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YoY) +23.8% 성장하며 주요 유형중 주식형, 재간접형, 채권형에 이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도표 1. 국내/해외 유형별 펀드 설정액 현황

구분	국내			해외			총합계
	공모	사모	소계	공모	사모	소계	
주식형	90,270	11,165	**101,435**	87,643	9,548	**97,190**	**198,625**
혼합형	12,012	12,791	**24,803**	7,232	1,361	**8,593**	**33,396**
- 혼합주식형	2,003	6,366	**8,369**	1,812	339	**2,150**	**10,519**
- 혼합채권형	10,009	6,425	**16,434**	5,420	1,022	**6,442**	**22,876**
채권형	92,568	114,646	**207,214**	7,827	5,541	**13,368**	**220,582**
MMF	145,139	66,060	**211,198**	1,969	0	**1,969**	**213,167**
파생상품	48,120	11,769	**59,889**	26,118	11,855	**37,973**	**97,862**
부동산	1,009	95,767	**96,776**	1,352	86,418	**87,770**	**184,546**
재간접	2,474	13,310	**15,784**	31,369	48,878	**80,247**	**96,031**
특별자산	9,166	56,047	**65,213**	443	92,297	**92,740**	**157,953**
PEF	-	5,074	**5,074**	-	-	**-**	**5,074**
혼합자산	2,597	44,924	**47,521**	5,726	31,491	**37,216**	**84,737**
전체	**403,354**	**431,554**	**834,908**	**169,679**	**287,508**	**457,186**	**1,292,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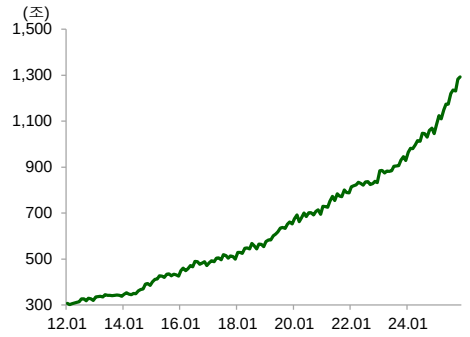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십억좌, 2025-11-28기준

도표 2. 국내/해외 유형별 펀드 설정액 전년말 대비 증감규모 및 증감률

구분	증감 규모			증감률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주식형	39,583	33,269	**72,851**	64.0%	52.0%	**57.9%**
혼합형	1,471	3,249	**4,720**	6.3%	60.8%	**16.5%**
- 혼합주식형	173	755	**928**	2.1%	54.1%	**9.7%**
- 혼합채권형	1,298	2,494	**3,792**	8.6%	63.2%	**19.9%**
채권형	47,886	3,549	**51,435**	30.1%	36.1%	**30.4%**
MMF	45,218	990	**46,208**	27.2%	-	**27.7%**
파생상품	7,141	8,448	**15,589**	13.5%	28.6%	**18.9%**
부동산	9,304	5,158	**14,462**	10.6%	6.2%	**8.5%**
재간접	1,142	17,475	**18,617**	7.8%	27.8%	**24.0%**
특별자산	2,959	3,718	**6,677**	4.8%	4.2%	**4.4%**
PEF	1,325	-	**1,325**	35.4%	-	**35.4%**
혼합자산	5,784	8,568	**14,352**	13.9%	29.9%	**20.4%**
전체	**161,794**	**84,391**	**246,185**	**24.0%**	**22.6%**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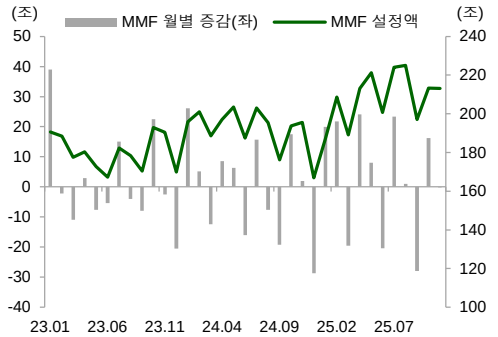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십억좌, 2025-11-28기준

도표 3. 시장 전체 설정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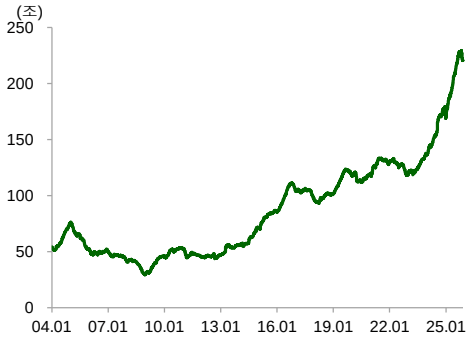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MMF 설정액 및 월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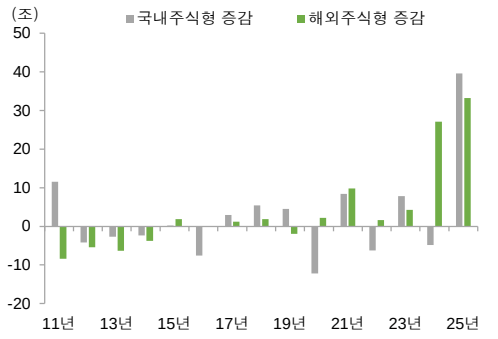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채권형 설정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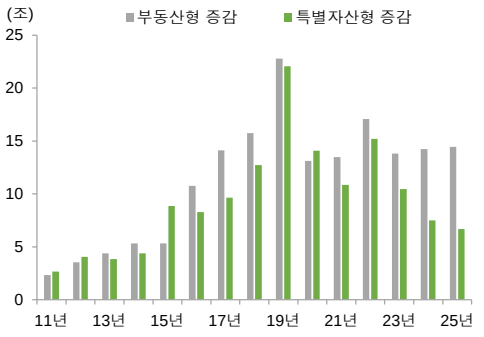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국내/해외 주식형 설정액 연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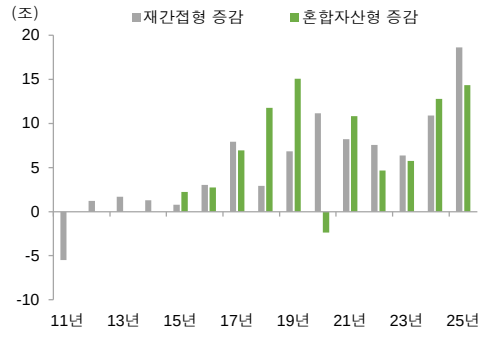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7.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설정액 연간 증감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8. 재간접형, 혼합자산형 설정액 연간 증감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2)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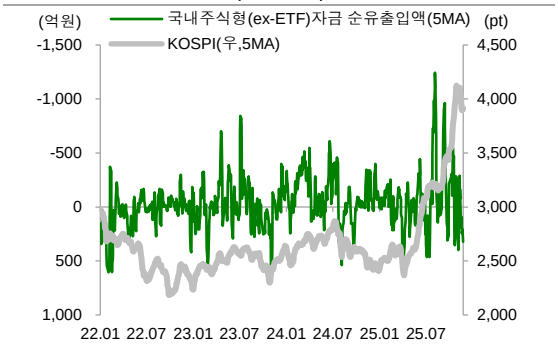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새해 들어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실적 쇼크, 트럼프의 관세, 딥시크 파장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주요국 증시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했다. 하지만 3월 들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행에 따른 우려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4월초 트럼프의 상호관세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준하는 역대급 폭락 장세를 보였다. 이후 중국 제외 상호관세 유예, 낙폭과대 인식, 밸류에이션 메리트 등에 힘입어 상승 반전하며 결국 4월 월간 기준으로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후 빅테크의 양호한 기업실적, 미중 무역 협상 진전, 특히 새정부 정책과 AI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로 인해 11월말 현재 KOSPI와 KOSDAQ은 각각 전년말 대비 +63.6%, +34.6%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5월과 6월을 제외하고 매월 순유입을 기록한 영향으로 연초 이후 13조 3,408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을 ETF와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 나누어 살펴보면, ETF로의 자금 흐름은 5월을 제외하고 매월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영향으로 연초 이후 총 14조 5,772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의 연초 이후 자금 흐름: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간 1.2조 원 순유출에 그침. 반면 증시가 급락한 4월 대규모 저가 매수세 유입은 긍정적 영향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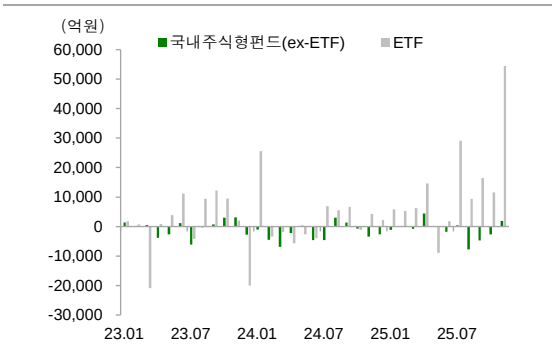
또한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의 자금 흐름은 연초 이후 1조 2,364억 원 순유출 되며 3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증시가 급락했던 4월 대규모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증시가 약세를 보인 시기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도표 9. 국내 주식형 펀드(ex-ETF)자금흐름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국내 주식형 펀드 월별 자금 순유출입액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3) 세부 유형별 펀드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인덱스주식기타 유형 펀드 설정액 증가: 고배당주, 반도체 또는 조선 대형주 집중투자펀드, AI반도체, 전력설비, 방산 펀드 등 일부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어 설정액이 6조 5,769억 증가하여 5년 연속 증가세 기록

연초 이후 공모형 국내 투자 펀드 설정액 증감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 주식형은 패시브 유형을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되어 증가를 기록했다. 설정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국내 인덱스주식형 펀드 중 인덱스주식기타 유형으로 고배당주, 반도체 또는 조선 대형주 집중투자펀드, AI반도체, 전력설비, 방산 관련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연초 이후 6조 5,769억 증가하며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인덱스주식코스피200유형은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자금이 유입 되어 3조 3,662억 증가하며 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인덱스주식섹터 유형은 일부 반도체, 2차전지, 증권 업종 추종 펀드 등으로는 자금이 유입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673억 증가하여 7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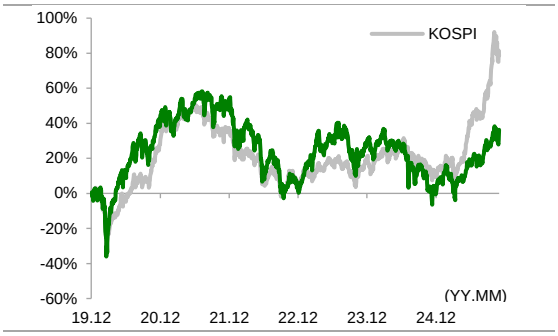
국내 액티브주식형 중 액티브주식일반 유형은 일부 가치주 펀드와 소부장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연초 이후 2,334억 증가했으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증가세 기록

국내 액티브주식형 펀드 중 액티브주식일반 유형은 일부 가치주 펀드와 소부장 펀드 등으로 자금 흐름이 유입세를 보인 영향으로 연초 이후 2,334억 증가하여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액티브주식섹터 유형은 일부 테크섹터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104억 증가하며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액티브주식배당 유형은 양호한 성과와 함께 차익실현성 환매 증가로 자금이 유출된 영향으로 1,339억 감소하며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또한 액티브주식테마 유형은 일부 ESG 펀드와 삼성그룹주 펀드 등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2,644억 감소하며 3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또한 액티브주식중소형 유형은 한때 증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나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자 자금이 유출이 지속되면서 연초 이후 48억 감소하며 7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갔다.

공모형 국내 채권형 펀드는 연초 기관의 자금 집행과 채권형 ETF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연초 이후 37.3조 증가했다. 모든 채권 세부 유형이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특히 초단기채권 유형은 11개월간 무려 25.8조 이상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투자처로 확실히 자리 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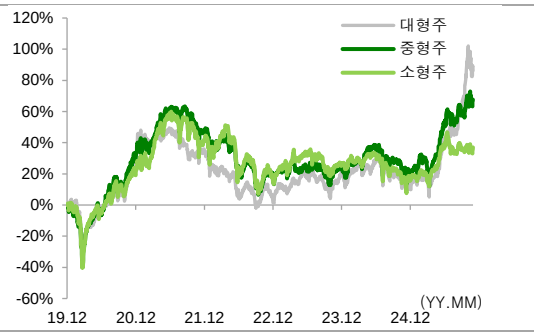
연초 이후 유형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 세부 유형 중 액티브주식섹터 유형이 유형내 비중이 큰 일부 테크 펀드가 연초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영향으로 +85.04%로 가장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도표 11. KOSPI VS KOSDAQ 누적수익률 추이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19.12.30 = 0)

도표 12. KOSPI 대형주 VS 중형주 VS 소형주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19.12.30 = 0)

도표 13. 국내 펀드 세부 유형별 설정액 및 수익률

대유형	소유형	설정액(억)			수익률(%)					
		'251128	'241231	증감	3M	6M	YTD	1Y	3Y	5Y
국내 주식형	액티브주식일반	81,105	78,770	2,334	21.30	43.25	65.77	62.80	74.53	68.72
	액티브주식중소형	8,200	8,248	-48	12.22	28.89	52.67	52.95	67.43	72.34
	액티브주식배당	26,450	27,788	-1,339	18.46	37.77	53.28	47.26	67.31	75.80
	액티브주식섹터	7,768	7,664	104	39.43	70.48	85.04	87.88	80.03	62.83
	액티브주식테마	9,833	12,477	-2,644	24.11	49.42	66.00	60.75	66.79	64.95
	인덱스주식코스피200	117,428	83,766	33,662	30.92	60.75	79.92	72.84	90.17	78.56
	인덱스주식KRX300	638	900	-262	29.63	58.53	76.26	69.33	90.36	71.83
	인덱스주식섹터	75,084	57,412	17,673	21.27	49.20	44.27	35.31	33.30	39.67
	인덱스주식기타	313,225	247,456	65,769	26.27	59.06	79.84	70.76	78.80	56.58
국내 혼합형	자산배분	4,297	3,628	670	10.37	22.82	34.47	32.13	45.10	38.60
	주식혼합	25,989	24,373	1,616	13.01	25.10	35.28	33.06	45.64	43.43
	채권혼합	153,847	133,630	20,217	4.04	7.93	11.29	11.27	22.88	21.62
	채권알파	3,959	5,774	-1,815	0.49	1.97	3.84	3.96	16.62	17.21
	하이일드혼합	13,355	14,375	-1,020	0.32	2.13	4.37	4.55	19.86	24.59
국내 채권형	국공채권	105,764	84,682	21,083	-2.96	-3.32	-0.59	-0.67	12.02	8.23
	회사채권	55,916	29,451	26,465	-0.56	0.33	2.80	3.31	17.93	16.72
	일반채권	298,930	231,286	67,644	-1.74	-1.54	1.07	1.30	15.13	11.27
	초단기채권	590,510	332,307	258,204	0.56	1.26	2.60	2.95	11.28	13.65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2025-11-28기준

(4) 국내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일부 가치주 펀드, 누적된 소외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자금이 유입되어 연초 이후 자금 흐름 증감 상위 기록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ex-ETF)의 펀드별 자금흐름 증감을 살펴보면, VIP한국형가치투자증권자투자신탁[주식],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1[주식] 등의 일부 가치주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어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NH-Amundi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소부장 펀드도 자금이 유입되어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KB새로운대한민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하나파이팅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등의 최근 1년 이내 설정된 일부 펀드로도 자금이 유입되어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상위를 기록했다.

일부 레버리지 펀드,인덱스 펀드가 차익실현성 환매 출회로 연초 이후 자금 흐름 증감 하위 기록

반면 자금흐름이 감소한 펀드를 살펴보면,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대신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일부 레버리지 펀드 또는 인덱스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 NH-Amundi 100년기업그린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등의 ESG 펀드가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모 등의 일부 배당주 펀드와 가치주 펀드도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하위를 기록했다.

도표 14. 국내 주식형 펀드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상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증감**	YTD*	1Y	3Y
VIP한국형가치투자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3-04-03	6,004	10,293	**5,201**	42.28	44.76	-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	2013-07-09	4,797	10,561	**4,689**	75.61	75.06	132.37
KB새로운대한민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25-07-23	1,785	2,166	**2,039**	21.35	-	-
NH-Amundi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2019-08-14	2,331	8,334	**1,908**	97.72	101.65	117.53
대신인덱스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2018-10-23	1,855	4,390	**1,449**	81.64	74.77	99.14
디에스Maestro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3-07-12	910	1,567	**1,181**	84.82	83.26	0.00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9-10-21	3,671	9,704	**1,127**	102.52	110.02	84.62
하나파이팅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2024-12-26	734	1,346	**1,101**	85.54	-	-
KCGI코리아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4-08-22	1,564	1,953	**893**	75.24	74.87	130.28
마이다스K200인덱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2022-02-14	596	1,006	**807**	81.51	75.03	100.90

단위: 억, %, 2025-11-28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 : 2025년 이후 출시된 펀드의 경우 설정일 이후 수익률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운용 펀드/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국내 주식형 펀드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하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증감	YTD	1Y	3Y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3-04-22	2,665	8,218	-5,253	201.73	175.89	187.44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파생형)(운용)	2006-03-15	4,839	10,688	-3,219	81.05	74.00	93.48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2009-04-21	791	5,333	-2,671	69.40	65.86	79.02
대신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07-11-28	508	1,333	-2,116	79.75	73.07	97.16
NH-Amundi100년기업그린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2020-09-03	1,231	2,339	-1,192	86.62	78.86	106.09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2008-03-24	70	164	-1,003	79.94	72.96	94.35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04-09-22	715	1,435	-976	51.52	45.35	72.11
다올VIP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9-07-20	543	1,752	-935	68.96	83.82	93.95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모	2014-03-17	1,290	1,598	-919	42.65	38.38	31.52
KB코리아뉴웨이브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2020-10-07	840	1,264	-847	65.87	63.13	53.83

단위: 억, %, 2025-11-28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일부 코스피200 레버리지 펀드가 관련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 기록

펀드별로 연초 이후 성과를 살펴보면,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KB스타코리아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삼성KOSPI200 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 1[주식-파생재간접형],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IBK2.0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 [주식-파생], 한국투자두배로증권투자신탁 1(주식-재간접파생형) 등의 코스피200 레버리지 펀드가 관련 증시 강세 영향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NH-Amundi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등의 소부장 펀드가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중소형주 펀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피 중소형주 및 코스닥 증시 영향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 하위 기록

반면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한국투자중소밸류증권자투자신탁(주식),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KB스타코스닥15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브이뉴그로쓰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등의 코스닥 펀드 또는 중소형주 펀드는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영향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 하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밸류지속성장ESG증권자투자신탁(주식)(모), VIP한국형가치투자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증권투자신탁1 (주식), 신영밸류우선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중소형 가치주 펀드도 상대적 부진 모습을 보여 연초 이후 수익률 하위에 올랐다.

도표 16. 국내 주식형 펀드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3M	6M	YTD	1Y	3Y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2010-12-27	385	76.13	172.03	**232.95**	202.11	210.89
KB스타코리아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2013-04-23	538	67.81	149.76	**202.74**	176.56	191.65
삼성KOSPI200 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재간접형]	2012-04-03	107	68.19	149.60	**202.11**	176.43	188.32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3-04-22	2,665	67.99	149.47	**201.73**	175.89	187.44
IBK2.0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 [주식-파생]	2014-03-13	149	66.92	149.14	**201.20**	175.52	189.39
한국투자두배로증권투자신탁 1(주식-재간접파생형)	2013-05-24	175	68.10	149.70	**201.02**	175.58	186.70
하나파워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0-08-17	108	48.55	101.70	**135.54**	120.65	139.03
NH-Amundi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09-06-17	752	48.67	101.23	**134.45**	120.00	138.75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9-10-21	3,671	48.47	85.95	**102.52**	110.02	84.62
NH-Amundi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2019-08-14	2,331	37.70	66.98	**97.72**	101.65	117.53

단위: 억, %, 2025-11-28 기준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국내 주식형 펀드 연초 이후 수익률 하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3M	6M	YTD	1Y	3Y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2018-04-05	211	6.29	9.99	**17.14**	18.85	38.15
한국투자중소밸류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7-07-23	326	-0.20	1.12	**21.74**	24.46	54.75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17-07-24	606	8.55	20.35	**34.58**	32.02	39.38
한국밸류지속성장ESG증권자투자신탁(주식)(모)	2018-07-04	130	10.40	21.92	**37.12**	36.37	79.31
KB스타코스닥15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2016-05-17	684	13.52	30.35	**37.31**	33.17	55.07
VIP한국형가치투자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3-04-03	6,004	3.39	16.69	**42.28**	44.76	-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증권투자신탁 1(주식)	2011-05-20	406	9.19	22.95	**42.41**	49.70	89.48
신영밸류우선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0-05-04	268	18.14	30.61	**42.53**	38.33	41.46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모	2014-03-17	1,290	9.77	23.72	**42.65**	38.38	31.52
브이뉴그로쓰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05-12-02	101	-2.66	18.80	**42.68**	50.34	66.69

단위: 억, %, 2025-11-28 기준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5) 해외 펀드 지역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북미 펀드 설정액 증가: 증시 변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S&P500, 나스닥 지수 등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일부 배당주 펀드, AI와 테크주 집중 투자 펀드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연초 이후 10.9조 증가함

해외 펀드 연초 이후 설정액 증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펀드가 S&P500지수, 나스닥 지수 등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특히 일부 배당주 펀드, AI와 테크주 집중 투자 펀드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10조 8,660억 증가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이후 매월 자금이 유입되며 3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북미 증시의 변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가매수성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매월 자금흐름이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연초 이후 같은 기간 설정액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글로벌 펀드는 인공지능, AI전력인프라 또는 원자력 관련 펀드, 우주항공 관련 펀드, 테슬라 밸류체인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7,449억 증가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3반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던 중국 펀드는 미중 무역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양 정책과 일부 테크 기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연초 이후로는 6,758억 증가했다.

반면 인도 펀드는 상대적 증시 부진 속에 차익실현성 환매 증가 등으로 인해 일부 인덱스 펀드와 중소형주 펀드 등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연초 이후 3,941억 감소하며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도표 18. 해외 주식형 펀드 지역별 설정액 및 수익률

구분	설정액(억)			수익률(%)					
지역/국가	'251128	'241231	증감	3M	6M	YTD	1Y	3Y	5Y
글로벌	123,328	115,879	**7,449**	10.44	23.34	**19.40**	22.53	65.80	61.11
글로벌이머징	1,357	1,396	**-39**	8.99	19.70	**27.13**	27.29	44.20	18.35
EMEA	29	31	**-2**	4.10	14.94	**24.51**	28.09	71.96	24.73
브릭스	1,744	1,933	**-190**	5.24	13.26	**20.60**	20.46	27.74	-11.79
신흥아시아	2,563	2,798	**-235**	5.26	10.06	**4.80**	9.30	32.81	37.56
친디아	834	1,009	**-175**	3.10	11.18	**14.66**	17.40	36.79	3.30
중국	63,247	56,489	**6,758**	3.47	22.20	**24.12**	33.25	34.41	-8.61
중화권	16,814	21,830	**-5,016**	16.14	29.55	**29.10**	39.09	2.32	12.24
베트남	6,555	7,436	**-881**	3.03	28.35	**19.13**	26.47	75.65	81.32
인도	15,371	19,312	**-3,941**	7.66	7.47	**0.89**	4.15	47.65	138.20
아시아퍼시픽	1,262	1,604	**-342**	9.48	23.76	**24.35**	31.37	68.39	42.84
아시아퍼시픽(ex_J)	3,445	4,614	**-1,168**	1.95	12.79	**12.70**	14.82	29.47	11.62
일본	2,575	3,326	**-751**	15.76	30.96	**27.07**	34.07	78.47	94.97
유럽	2,065	1,783	**282**	2.99	4.23	**17.17**	19.65	38.04	54.23
신흥유럽	507	503	**4**	6.16	18.96	**35.69**	48.49	74.18	44.64
러시아	1,945	1,955	**-9**	4.53	13.61	**-3.84**	6.85	9.91	-37.71
북미	352,415	243,754	**108,660**	11.14	27.83	**15.69**	21.87	110.94	134.93
중남미	386	493	**-107**	13.61	17.83	**37.85**	32.36	28.54	48.84
브라질	396	505	**-109**	18.19	24.91	**44.73**	30.89	41.77	50.48

자료: 해외 공모펀드형 기준,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해외 펀드 월간 수익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의 영향으로 글로벌 펀드는 연초 이후 19.4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증시는 연초 미국 고용 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및 달러 강세 부담, 딥시크 파장 등으로 약세로 시작했다. 2월 이후 트럼프의 관세 포문이 열리면서 증시는 폭락세를 보였다. 이후 한때 무역 갈등 완화와 협상 기대감 등으로 인해 반등을 보이기도 했으나, 트럼프의 경기침체 용인 발언 등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4월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에는 추가적으로 11~49%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증시는 폭락세를 보였다. 이후 중국 제외 상호 관세 유예, 낙폭과대 인식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으며, 이후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과 특히 인공 지능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여 결국 연초 이후로는 강세로 마감했다.

브라질 펀드 강세: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 수혜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며 증시가 급등세를 보인 영향으로 연초 이후 +44.73% 상승하며 강세 기록

세부 유형 중 브라질 펀드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 수혜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며 증시가 급등세를 보인 영향으로 연초 이후 +44.73% 상승하며 해외 펀드 유형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반면 인도 펀드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출 등으로 인도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연초 이후 +0.89%의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6) 해외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글로벌 펀드로의 연초 이후 자금흐름 유입세: 일부 AI&반도체 펀드, 우주항공, 글로벌 테크, 글로벌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가 상위 기록

해외 주식형 펀드(ex-ETF)의 펀드별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을 살펴보면,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증권자투자신탁UH(주식)(모), NH-Amundi글로벌우주항공증권투자신탁(UH)[주식],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증권투자신탁(H)[주식](종류) 등의 글로벌 펀드가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상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투자GoldmanSachs미국테크증권자투자신탁H(주식)(모), 신한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파생형], 삼성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등의 북미 펀드도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상위에 올랐다.

반면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자율주행증권투자신탁(주식)(모), 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증권자투자신탁H(주식),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같은 글로벌 펀드와 북미 펀드가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하위에 올랐다. 또한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피델리티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KB중국본토A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등의 인도,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가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하위에 올랐다.

도표 19. 해외 주식형 펀드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상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증감	YTD*	1Y	3Y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증권자투자신탁UH(주식)(모)	2023-04-26	1,450	4,377	**2,653**	37.42	51.05	-
한국투자GoldmanSachs미국테크증권자투자신탁H(주식)(모)	2025-08-28	2,337	2,458	**2,359**	5.14	-	-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증권자투자신탁H(주식)(모)	2023-03-27	1,615	4,018	**1,868**	34.50	41.35	-
NH-Amundi글로벌우주항공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022-05-24	1,129	3,160	**1,707**	60.55	59.94	170.30
신한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파생형]	2023-09-15	1,773	2,877	**1,375**	15.42	18.73	-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5-06-17	10,624	46,423	**1,351**	16.48	16.65	78.11
NH-Amundi글로벌우주항공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022-05-19	719	1,812	**1,206**	59.13	54.25	148.57
삼성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016-03-07	1,130	4,334	**1,044**	14.82	18.45	86.27
KB스타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운용)	2017-12-27	1,909	6,656	**970**	17.84	19.50	101.72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증권투자신탁(H)[주식](종류)	2021-09-23	738	1,137	**820**	67.58	61.37	89.90

단위: 억, %, 2025-11-28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 : 2025년 이후 출시된 펀드의 경우 설정일 이후 수익률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운용 펀드/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해외 주식형 펀드 연초 이후 자금흐름 증감 하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증감	YTD	1Y	3Y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자율주행증권투자신탁(주식)(모)	2017-10-26	7,330	11,244	**-4,217**	17.87	23.22	20.62
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0-03-30	5,879	18,814	**-2,640**	9.74	9.74	66.80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15-09-18	820	4,653	**-1,237**	2.31	6.64	71.67
피델리티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7-05-18	1,204	2,545	**-1,111**	14.98	12.94	26.30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020-04-16	1,201	1,867	**-850**	4.75	-2.74	11.47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6-02-17	1,809	3,918	**-824**	14.16	19.61	67.60
KB중국본토A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11-03-23	2,489	4,309	**-750**	16.56	23.04	10.00
유리필라델피아반도체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_운용	2020-02-05	1,006	3,984	**-732**	34.11	43.30	156.37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07-05-28	993	2,166	**-711**	13.38	11.82	66.71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6-12-01	845	2,958	**-607**	17.14	24.25	86.00

단위: 억, %, 2025-11-28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운용 펀드/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골드 펀드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달러 약세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일부 중앙은행의 수요 지속 등으로 국제 금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일부 금펀드 등이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 기록

펀드별로 연초 이후 성과를 살펴보면, I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iM에셋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신한골드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 등의 Gold 펀드가 국제 금가격 강세 영향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NH-Amundi글로벌우주항공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등의 항공 테크 펀드도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증권투자신탁(H)[주식](종류), 한화그린히어로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그린 테크 펀드도 관련 주 강세 영향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미래에셋아시아테크증권투자신탁(주식), 다올중국1등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펀드도 중국 테크주 강세에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럭셔리 펀드 약세: 중국 시장의 급격한 수요 감소, 소비자 피로감 및 구매력 약화, 경험 소비 선호 트렌드 부상 등으로 럭셔리 업종이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 하위 기록

반면 삼성인도중소형FOCUS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KB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삼성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2[주식], 우리프랭클린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등의 인도 펀드가 연초 이후 수익률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IBK럭셔리라이프스타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럭셔리 펀드는 고성장을 보이던 중국 시장의 급격한 수요 감소, 소비자 피로감 및 구매력 약화, 경험 소비 선호 트렌드 부상 등으로 럭셔리 업종이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미래에셋글로벌PE&VC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도 연초 이후 수익률 하위를 기록했다

도표 21. 해외 주식형 펀드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3M	6M	YTD	1Y	3Y
I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07-04-16	258	31.97	53.60	**119.72**	107.41	186.75
iM에셋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2008-09-10	398	34.85	58.98	**114.99**	110.98	198.14
신한골드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	2007-11-05	508	27.64	43.68	**97.34**	87.62	151.70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증권투자신탁(H)[주식](종류)	2021-09-23	738	19.91	44.21	**67.58**	61.37	89.90
한화그린히어로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0-10-16	424	28.59	60.60	**62.74**	73.54	93.64
NH-Amundi글로벌우주항공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022-05-24	1,129	10.04	26.09	**60.55**	59.94	170.30
미래에셋아시아테크증권투자신탁(주식)	2023-06-16	295	28.37	56.28	**53.08**	64.19	-
iM에셋월드광업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2008-09-18	369	21.07	37.61	**52.14**	38.40	32.54
다올중국1등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4-01-02	1,056	4.91	32.47	**49.06**	54.44	54.79
우리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3-05-31	230	36.04	61.00	**48.65**	39.75	70.78

단위: 억, %, 2025-11-28 기준,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펀드/모펀드 대상, ETF, H/UH중 우수 펀드만

도표 22. 해외 주식형 펀드 연초 이후 수익률 하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3M	6M	YTD	1Y	3Y
미래에셋글로벌PE&VC증권투자신탁(주식)	2022-06-17	187	-7.18	-2.91	**-10.63**	-13.69	36.49
삼성인도중소형FOCUS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2015-11-19	109	2.57	0.76	**-10.16**	-8.13	48.29
NH-Amundi인도네시아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	2007-12-26	187	2.54	0.06	**-9.84**	-10.75	-0.80
IBK럭셔리라이프스타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7-02-21	154	-3.10	-1.31	**-6.58**	-3.73	9.66
피델리티유럽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07-05-18	170	-2.96	-7.62	**-4.70**	-7.24	1.26
KB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07-10-01	133	-0.18	-1.65	**-4.19**	-5.03	18.99
삼성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 2[주식]	2009-08-26	636	7.15	5.11	**-3.76**	1.10	48.38
우리프랭클린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007-06-15	111	5.40	4.67	**-2.29**	0.60	54.11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15-02-25	1,311	3.94	4.62	**-1.98**	1.29	53.24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07-05-08	207	4.38	5.54	**-1.10**	1.91	58.12

단위: 억, %, 2025-11-28 기준,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펀드/모펀드 대상, ETF, H/UH중 부진 펀드만

(7) 신규 펀드 설정 현황 및 주요 신규 공모형 펀드

신규 펀드 출시 현황 및 규모: 연초 이후 2,774개 신규 펀드 론칭, 총 90조 8,280억 설정

연초 이후 유형별 신규 펀드 설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2,774개의 신규 펀드가 설정되었으며 설정 규모는 총 90조 8,280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327억 규모의 펀드가 설정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신규 펀드 출시건수는 0.9% 감소했으나 자금 유입은 증가하여 설정규모는 21.2% 증가했다. 이를 공모와 사모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공모 펀드는 펀드당 평균 약 409억의 신규 펀드가 총 482개 설정되었으며, 이를 합한 규모는 총 19조 7,016억이었다. 또한 사모 펀드는 펀드당 평균 약 310억의 신규 펀드가 총 2,292개 설정되었으며, 이를 합한 규모는 총 71조 1,264억이었다.

신규 펀드가 제일 많이 설정된 유형은 혼합자산형으로 총 751개의 펀드가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12조 5,238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169억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채권형으로 총 427개의 펀드가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27조 4,652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643억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재간접형으로 총 338개의 펀드가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각각 총 7조 9,472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235억 수준의 펀드가 설정되었다.

펀드 당 평균 신규 설정 규모가 가장 큰 펀드 유형은 MMF, 채권형 순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부동산형으로 펀드당 평균 435억 규모의 펀드가 335개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14조 5,653억이었다. 다음으로는 특별자산형으로 펀드당 평균 312억 규모의 펀드가 253개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7조 9,047억이었다.

도표 23. 연초 이후 유형별 신규 펀드수 및 설정액

구분	세부 구분	공모			사모			합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주식형	펀드수	37	83	**120**	83	17	**100**	**220**
	설정액	7,667	18,060	**25,727**	12,969	7,777	**20,746**	**46,473**
혼합 주식	펀드수	3	4	**7**	72	25	**97**	**104**
	설정액	653	5,124	**5,777**	5,973	2,855	**8,828**	**14,605**
혼합 채권	펀드수	26	9	**35**	157	4	**161**	**196**
	설정액	7,582	1,173	**8,755**	18,588	1,518	**20,106**	**28,861**
채권형	펀드수	58	12	**70**	336	21	**357**	**427**
	설정액	33,409	2,746	**36,155**	233,473	5,024	**238,497**	**274,652**
재간접	펀드수	47	117	**164**	33	141	**174**	**338**
	설정액	24,438	19,125	**43,563**	3,403	32,506	**35,909**	**79,472**
단기 금융	펀드수	1	2	**3**	3	0	**3**	**6**
	설정액	54,770	7,507	**62,277**	12,700	0	**12,700**	**74,977**
파생형	펀드수	39	36	**75**	31	38	**69**	**144**
	설정액	8,569	3,869	**12,438**	15,937	10,928	**26,865**	**39,303**
부동산	펀드수	1	0	**1**	255	79	**334**	**335**
	설정액	999	0	**999**	109,602	35,052	**144,654**	**145,653**
특별 자산	펀드수	1	2	**3**	66	184	**250**	**253**
	설정액	500	131	**631**	15,465	62,951	**78,416**	**79,047**
혼합 자산	펀드수	1	3	**4**	507	240	**747**	**751**
	설정액	564	131	**695**	76,077	48,466	**124,543**	**125,238**
합계	펀드수	**214**	**268**	**482**	**1,543**	**749**	**2,292**	**2,774**
	설정액	**139,150**	**57,866**	**197,016**	**504,187**	**207,077**	**711,264**	**908,280**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 기준
단위: 억,개

신규로 설정된 공모 펀드를 살펴보면, 지난 해에 이어 손익 차등형 사모투자재간접펀드가 출시되었다. 또한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다양한 국내외 채권형 펀드가 출시되었다. 또한 해외 주식형 펀드와 해외 혼합형 펀드 등 해외 펀드가 다양하게 출시되었다. 이외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다양한 ETF 특히 채권형 ETF와 해외 투자 ETF, 그리고 EMP가 다수 출시되어 투자자들의 니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다수의 TDF, 월지급식 펀드 등이 출시되어 투자자들의 장기 재산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24. 연초 이후 주요 신규 공모 펀드

구분	펀드명	유형*	설정일	설정액**
1	삼성알아서투자해주는EMP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5[채권혼합-재간접형]	일반채권	20251031	5,116
2	삼성글로벌CoreAI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3[주식혼합]	해외주식혼합	20250922	3,792
3	KB미중AI테크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3(채권혼합-재간접형)(운용)	해외주식혼합	20251031	3,532
4	흥국초장기채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파생형]	일반채권	20250225	3,094
5	한국투자GoldmanSachs미국테크증권자투자신탁H(주식)(모)	정보기술섹터	20250828	2,337
6	교보악사중단기우량채ESG증권투자신탁[채권]_운용	일반채권	20250807	2,327
7	신영기업가치레벨업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3(채권혼합)운용	채권혼합	20251117	2,160
8	삼성알아서글로벌주도테마EMP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재간접형]	해외채권혼합	20251114	2,143
9	삼성액티브알파코리아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파생형]	일반채권	20250228	1,859
10	iM에셋타이거포커스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임시미분류	20251029	1,855
11	미래에셋프리미엄크레딧초단기증권투자신탁(채권)	초단기채권	20250109	1,797
12	KB새로운대한민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액티브주식일반	20250723	1,785
13	브이아이초단기국채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	초단기채권	20250317	1,544
14	흥국크레딧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	일반채권	20250213	1,367
15	KB국공채머니마켓액티브증권투자신탁(채권)(운용)	국공채권	20250812	1,201
16	대신내일출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운용)	일반채권	20250520	1,197
17	신영내일드림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운용	초단기채권	20250115	1,172
18	KB크레딧알파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 1(채권)(운용)	일반채권	20250509	1,096
19	키움더드림중단기크레딧증권투자신탁[채권]	일반채권	20251027	1,054
20	신한포커스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파생형]	일반채권	20251106	987
21	한국투자미국테크스텝업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모)	해외채권혼합	20250716	849
22	DB다이렉트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_운용	초단기채권	20251016	805
23	한국밸류코리아기업가치포커스증권투자신탁2(사모투자재간접형)(운용)	액티브주식일반	20251117	802
24	한국밸류코리아기업가치포커스증권투자신탁 1(사모투자재간접형)(운용)	액티브주식일반	20251117	799
25	한국투자GlobalStrategic멀티인컴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모)	해외채권혼합	20250423	794
26	삼성내일지급머니마켓증권투자신탁[채권]	초단기채권	20250321	792
27	iM에셋내일출금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초단기채권	20250403	774
28	대신국채분할매매&고배당주30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채권혼합	20251024	750
29	삼성달러표시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USD)[채권]	북미채권	20250922	699
30	브이아이금.반.지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채권혼합	20251114	696
31	카디안내일환매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초단기채권	20250114	646
32	다올글로벌트렌드포커스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재간접형](운)	해외채권혼합	20250905	646
33	NH-Amundi성장주도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액티브주식일반	20251014	630
34	한국투자한미핵심성장포커스증권투자신탁2(사모투자재간접형)	글로벌주식	20250908	595
35	한국투자한미핵심성장포커스증권투자신탁 1(사모투자재간접형)(모)	글로벌주식	20250908	594
36	IBK내일출금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초단기채권	20250912	574
37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증권자투자신탁H[주식]	국내외주식	20250219	549
38	현대인베스트먼트넥스트하이킥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2(주식혼합)	주식혼합	20251024	548
39	KCGI코리아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2[채권]	채권혼합	20250627	541
40	KCGI코리아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4[채권혼합]	채권혼합	20251030	539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설정일순 정렬, ETF 설정액 1300억 이상, 그외 펀드는 설정액 500억 이상 펀드대상,
단위: 억, *유형: Fn-Spectrum 세부 평가 유형 기준, **설정액: 2025-11-28기준

도표 25. 연초 이후 주요 신규 공모 펀드II (ETF)

구분	펀드명	유형*	설정일	설정액**
41	KB미국중단기국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운용)	북미채권	20250110	529
42	한국밸류라이프V파워증권투자신탁2(사모투자재간접형)(운용)	임시미분류	20250929	505
43	한국밸류라이프V파워증권투자신탁 1(사모투자재간접형)(운용)	임시미분류	20250929	504
44	미래에셋TIGER머니마켓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초단기채권	20250416	33,647
45	삼성KODEX26-12금융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만기매칭채권	20251027	13,495
46	KBRISE단기특수은행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초단기채권	20250623	11,841
47	미래에셋TIGERKRX금현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	국내특별자산	20250620	6,630
48	한국투자ACE미국대형성장주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51107	5,020
49	삼성KODEX27-12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만기매칭채권	20250110	5,008
50	미래에셋TIGER코리아배당다우존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50519	4,998
51	삼성KODEX미국머니마켓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북미채권	20250509	4,823
52	미래에셋TIGERTDF2045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	라이프사이클	20250321	3,385
53	미래에셋TIGER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중국주식	20250523	3,240
54	신한SOL중단기회사채(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일반채권	20250217	3,024
55	미래에셋TIGER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51020	3,023
56	미래에셋TIGER코리아원자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50818	2,871
57	미래에셋TIGER28-04회사채(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만기매칭채권	20250822	2,819
58	미래에셋TIGER토탈월드스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글로벌주식	20250620	2,790
59	미래에셋TIGER차이나테크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중국주식	20250509	2,545
60	신한SOL팔란티어커버드콜OTM채권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해외채권혼합	20250418	2,445
61	삼성KODEX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중국주식	20250512	2,215
62	삼성KODEXK방산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50714	2,157
63	신한SOL미국원자력SMR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50516	2,110
64	삼성KODEX금융고배당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섹터	20250811	1,991
65	한국투자ACE미국AI테크핵심산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51024	1,930
66	신한SOL코리아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50922	1,825
67	미래에셋TIGER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북미채권	20250425	1,811
68	미래에셋TIGER미국AI전력SMR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51031	1,795
69	한국투자ACE미국대형가치주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51107	1,770
70	삼성KODEX금액티브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재간접형]	해외원자재	20250613	1,735
71	신한SOL미국양자컴퓨팅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50307	1,725
72	미래에셋TIGER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데일리커버드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50117	1,675
73	삼성KODEX미국휴머노이드로봇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50411	1,665
74	신한SOL27-12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만기매칭채권	20250818	1,633
75	삼성KODEX미국10년국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북미채권	20250814	1,539
76	KBRISE26-11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만기매칭채권	20251117	1,397
77	하나1Q미국S&P5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50314	1,340
78	한국투자ACE우량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회사채권	20250908	1,321
79	타임폴리오TIMEFOLIO차이나AI테크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중국주식	20250512	1,320
80	삼성KODEX코리아소버린A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섹터	20251020	1,303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설정일순 정렬, ETF 설정액 1300억 이상, 그외 펀드는 설정액 500억 이상 펀드대상,
단위: 억, *유형: Fn-Spectrum 세부 평가 유형 기준, **설정액: 2025-11-28기준

2025년 펀드시장 정리 및 2026년 전망

(1) 2025년 펀드시장의 특징

2025년 국내 펀드시장은 연초 이후 246.2조 증가한 1,292조로 마감하며 2007년 이후 동기(1~11월) 기준 두번째로 높은 +23.5%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

2025년 국내 펀드시장 전체 설정액은 총 246조 1,853억 증가하여 1,292.1조 대로 마감하며 지난 7월 1,200조 원대를 돌파한 이래 5개월 연속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5월 1,000조 원대를 처음 돌파한 이래 19개월 연속 유지하고 있어 1,000조 원대에 안착했다는 판단이다. 전년 말 대비 성장률은 +23.5%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성장률인 +15.2%에 비해서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동기(1월~1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07년의 +27.0%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0년 이후 5년 평균인 +9.9% 보다 높으며 2015년 이후 10년 평균인 +10.7% 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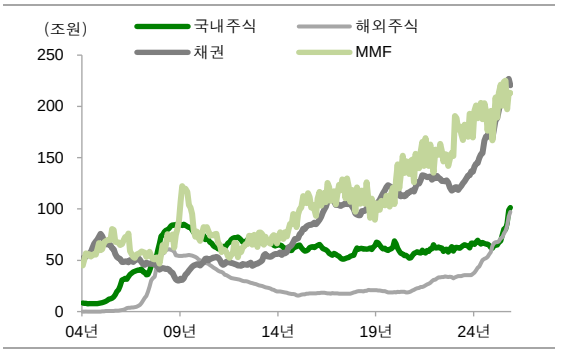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AI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고 특히 국내 증시가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급등세를 보이자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된 주식형 펀드가 연초 이후 +57.9% 성장을 보이며 200조원 대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중 유동성 증가로 MMF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인기 상품으로 올라선 채권형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23.9% 성장을 보였던 채권형의 경우 올해 들어서는 +30.4% 성장하며 성장세가 보다 강화되었다.

도표 26. 펀드 유형별 설정액 성장률 추이

기준년	합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재간접	MMF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25년*	23.5%	57.9%	9.7%	19.9%	30.4%	24.0%	27.7%	18.9%	8.5%	-0.1%	6.7%
24년	12.7%	21.5%	0.8%	34.3%	23.9%	16.4%	-1.7%	21.8%	9.1%	5.2%	22.2%
23년	11.4%	13.3%	-2.4%	-19.5%	14.7%	10.6%	12.1%	26.3%	9.7%	7.9%	11.1%
22년	5.7%	-4.8%	1.0%	-18.4%	-8.5%	14.3%	11.8%	6.9%	13.7%	12.9%	9.9%
21년	13.4%	23.5%	13.0%	45.9%	11.1%	18.5%	7.6%	3.6%	12.1%	10.1%	29.7%
20년	6.5%	-11.4%	-10.8%	-5.7%	-0.3%	33.6%	20.1%	-5.0%	13.3%	15.1%	-6.2%
15~24	10.7%	5.3%	-0.2%	-1.1%	9.7%	21.4%	7.7%	9.6%	19.4%	17.2%	-
20~24	9.9%	8.4%	0.3%	7.3%	8.2%	18.7%	10.0%	10.7%	11.6%	10.2%	13.3%
22~24	9.9%	10.0%	-0.2%	-1.2%	10.0%	13.8%	7.4%	18.4%	10.8%	4.4%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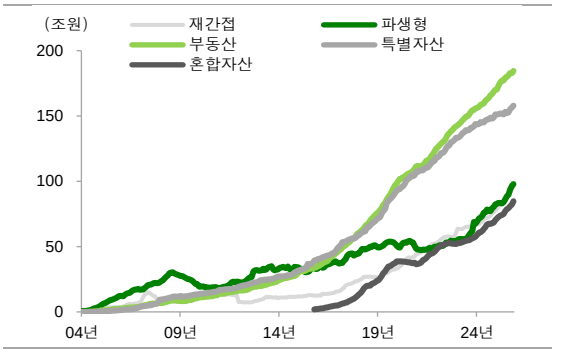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 1월~11월 기준

도표 27. 주요 유형별 설정액 추이 I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28. 주요 유형별 설정액 추이 II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연초 이후 34조 8,135억 원 순유입 기록

2025년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로도 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하며 순유입을 보인 영향으로 연초 이후 34조 8,135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를 ETF와 주식형 펀드(ex-ETF)로 세분하여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ETF로의 자금 흐름은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지난 해 같은 기간 순유입 규모 보다 +121% 이상 증가한 36조 6,846억 원이 순유입 되며 5년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 해 4.4조 원 가까이 순유출 되며 2년 연속 순유출을 보였던 주식형 펀드(ex-ETF)로의 자금 흐름은 연초 이후 1조 8,706억 원 순유출 되며 3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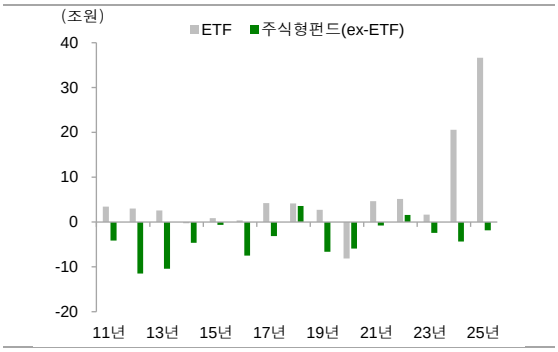
국내 주식형 펀드는 13.3조 원 순유입 되며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며, 해외 주식형 펀드는 21.5조원 가까이 순유입 되며 2년 연속 순유입이 지속됨

주식형 펀드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해 약 309억 원이 순유출 되며 2년 만에 순유출로 전환되었던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연초 이후 13.3조 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해 약 16.2조 원이 순유입 되며 1년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됐던 해외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연초 이후 21.5조 원이 순유입 되었다.

국내 주식형 (ex-ETF) 펀드: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성 환매 증가 등으로 1조 2,364억 원 순유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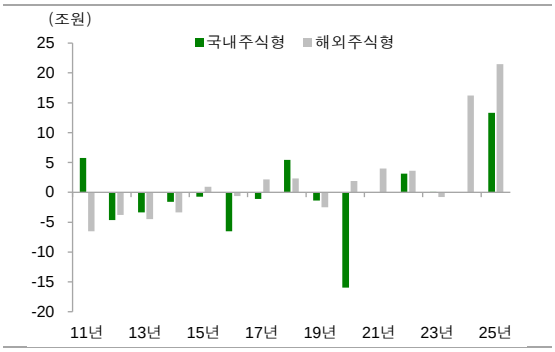
국내 주식형 펀드를 다시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 세분하여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는 올해 들어서는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성 환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조 2,364억 원이 순유출 되며 3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 해 2조 5,438억 원 순유입 되며 4년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던 국내 주식형 ETF는 올해 들어서도 연초 이후 14조 5,772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도표 29. 주식형 펀드 연도별 자금 순유출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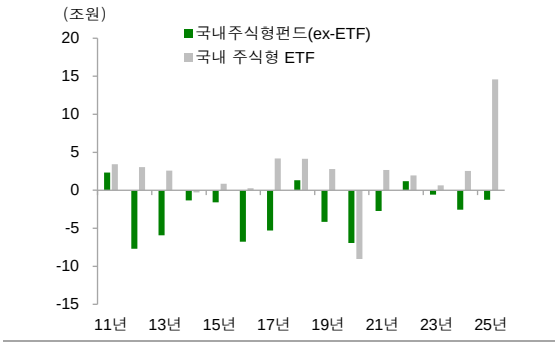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30. 국내외 주식형 펀드 연도별 자금 순유출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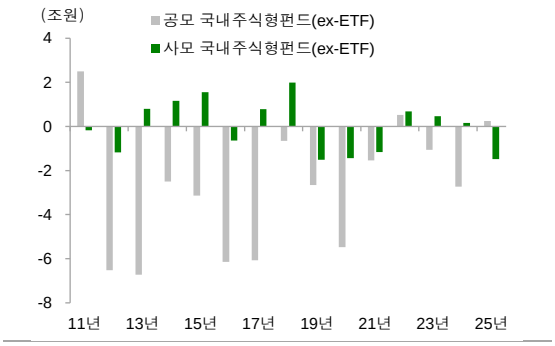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31. 국내주식형 펀드 연도별 자금 순유출입액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32. 국내주식형 펀드(ex-ETF) 연도별 자금 순유출입액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2025년 펀드시장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의 5가지 특징을 보였다.

2025년 펀드시장 특징: 1) 국내외 증시의 상승세 속에 투자 심리 개선으로 투자 자금이 ETF를 중심으로 대거 유입되어 주식형 펀드 큰 폭 증가, 2) 채권형 ETF에 높은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 3) MMF로 몰린 유동성, 4)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퇴직연금 펀드, 배당주 펀드, Gold 펀드 등 증가, 반면 공모주 펀드는 역성장, 5) 온라인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펀드 투자 증가 지속

첫 번째는 연초 이후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상승세를 보이고 특히 국내 증시가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의 자금이 ETF를 중심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크게 증가했다. 두번째는 국내 채권형 ETF가 편리성과 상품 매력도 강화 등으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 갔다. 세번째는 MMF 설정액이 시중 유동성 증가와 법인 자금이 몰리면서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네번째, 퇴직연금 펀드, 배당주 펀드, Gold 펀드 등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자금이 유입되며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공모주 펀드는 역성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많은 산업에서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펀드시장도 온라인 펀드 판매가 점점 증가하며 펀드 가입도 온라인 시대가 활짝 열렸다.

국내외 증시의 상승세 속에 투자 심리 개선으로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된 주식형 펀드 → 주식형 ETF는 대규모 투자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주식형 펀드(ex-ETF)는 순유출을 되며 상반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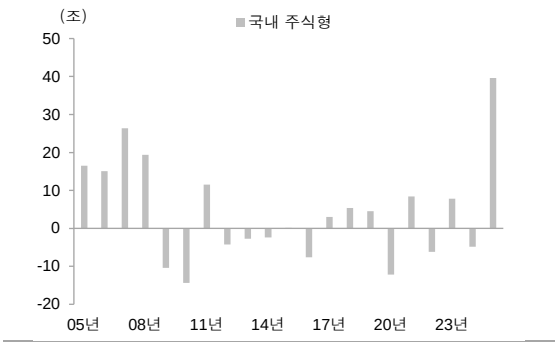
이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투자 기회로 삼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ETF를 중심으로 대거 유입되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새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자 투자 심리가 강화되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연초 이후 72조 8,513억 증가했다. 이를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초 이후 39조 5,828억 증가하며 통계 자료가 발표된 2004년 이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직전 최대 규모의 증가를 기록했던 2007년의 26조 3,856억 대비 50% 이상 증가한 큰 규모이다. 또한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의 경우 투자자들의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배경으로 ETF를 중심으로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33조 2,685억이 증가했다.

이를 자금 흐름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7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34조 8,135억 원이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살펴보면, 지난 해 순유출을 보였던 국내 주식형 펀드는 올해 들어 13.3조 원 순유입 되며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며, 해외 주식형 펀드는 21.5조원 가까이 순유입을 되며 각각 2007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형 펀드를 다시 주식형 ETF와 주식형 펀드(ex-ETF)로 세분하여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주식형의 경우 국내 주식형 ETF는 올해 들어서도 연초 이후 14조 5,772억 원 순유입 되며 5년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는 올해 들어서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성 환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조 2,364억 원이 순유출 되며 3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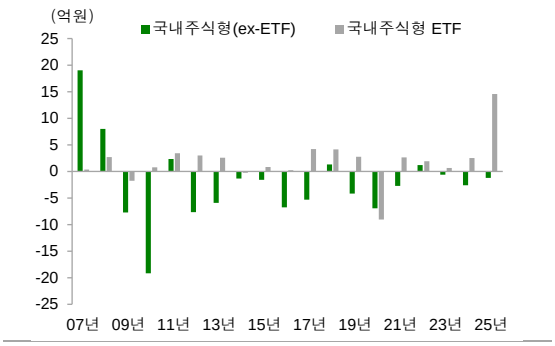
또한 해외 주식형의 경우 해외 주식형 ETF는 올해 들어서도 연초 이후 22조 1,074억 원 순유입 되며 6년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ex-ETF)는 6,334억 원이 순유출 되며 3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 해 이후 주식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주식을 직접 매매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주식형 ETF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33. 국내 주식형 펀드 연도별 설정액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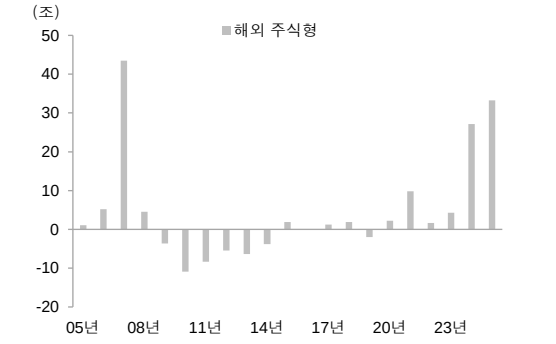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34. 국내주식형 펀드로의 연도별 자금 순유출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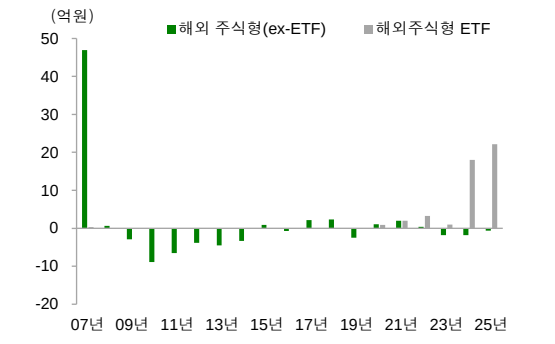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35. 해외 주식형 펀드 연도별 설정액 증감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36. 해외주식형 펀드로의 연도별 자금 순유출입액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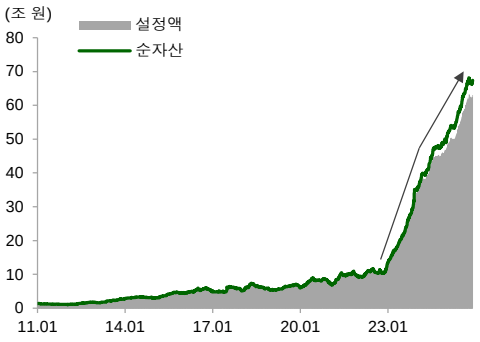
2023년 이후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높은 절대 금리 레벨, 투자의 편리성, 투자자 저변 확대, 다양한 신규 상품 출시 등으로 국내 채권형 ETF가 부각되며 대규모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두번째로, 2023년 이후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내 채권형 ETF(Fn-Spectrum 분류기준)가 올해에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규모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4분기에는 레고랜드 채권 사태를 비롯해 여러 우려가 집중되며 크레딧 시장과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을 보이면서 국내 채권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인해 2022년 12월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았으며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투자심리는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높은 절대 금리 레벨에 따른 투자매력도 부각, 투자의 편리성, 투자자 저변 확대 등으로 국내 채권형 ETF가 부각된 가운데 다양한 상품(액티브 ETF 포함)이 출시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11.5조 증가했는데 그 중 국내 채권형 ETF가 9.7조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드러났다. 2024년에도 국내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꾸준히 이어졌는데, 그 중 국내 채권형 ETF로의 자금 흐름은 3월과 10월을 제외하고 매월 순유입을 기록하며 한해 동안 7조 4,616억 원 순유입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을 제외하고 매월 자금이 순유입되며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 2,059억 원이 순유입 되며 7년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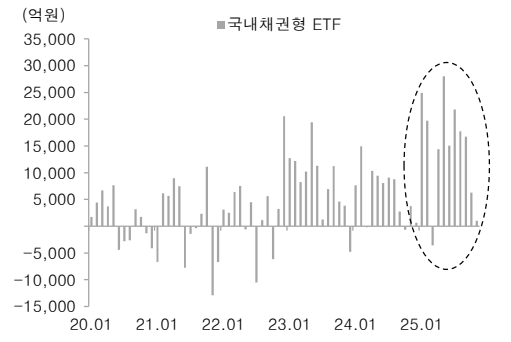
국내 채권형 ETF(Fn-Spectrum 분류기준)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1조 원대였으나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왔다. 2020년 이후 성장세가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20조 증가하여 설정액이 33조 대를 돌파했으며 2024년에도 12.7조 증가해 46조 대를 돌파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며 16.6조 증가하여 11월말 기준 설정액 규모는 63.1조로 월말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 채권 시장의 약세와 함께 10월 이후 순유입 강도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37. 국내 채권형 ETF 설정액 및 순자산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38. 국내 채권형 ETF로의 월간 자금 흐름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39. 국내 채권형 ETF 연초 이후 자금 흐름 상위 Top2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자금 흐름		평가유형
				1M	YTD	
삼성KODEX머니마켓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40805	80,867	84,312	-4,132	42,819	초단기채권
미래에셋TIGER머니마켓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50416	33,647	33,973	5,117	33,925	초단기채권
삼성KODEX26-12금융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51027	13,495	13,487	12,434	13,484	만기매칭채권
KBRISE단기특수은행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50623	11,841	11,966	567	11,849	초단기채권
삼성KODEXCD1년금리플러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합성)	20240419	25,281	25,818	80	7,823	채권혼합
삼성KODEX종합채권(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170616	29,803	34,559	774	6,495	일반채권
하나1Q머니마켓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40401	9,416	9,882	1,244	5,940	초단기채권
미래에셋TIGER우량회사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20818	6,919	7,975	-335	5,739	회사채권
삼성KODEX27-12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50110	5,008	5,115	-115	5,072	만기매칭채권
삼성KODEX26-12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31211	7,564	8,212	-2,851	4,940	만기매칭채권
신한SOL초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31106	9,171	9,884	-369	4,854	초단기채권
미래에셋TIGERCD1년금리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합성)	20240201	14,546	15,309	5,198	4,720	채권혼합
KBRISEKOFR금리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합성)	20240429	6,516	6,834	830	4,400	초단기채권
미래에셋TIGER종합채권(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30127	9,256	10,164	-53	3,892	일반채권
KBRISE머니마켓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30508	23,708	26,037	-2,088	3,807	초단기채권
미래에셋TIGER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170628	7,568	8,466	729	3,570	초단기채권
미래에셋TIGER27-04회사채(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40417	5,163	5,471	420	3,347	만기매칭채권
미래에셋TIGER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120515	9,780	10,808	919	3,233	국공채권
KBRISE종합채권(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10524	15,326	16,522	439	3,127	일반채권
신한SOL중단기회사채(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50217	3,024	3,092	-227	3,058	일반채권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억 원, 2025-11-28, YTD 자금 흐름 기준 정렬

MMF 설정액 성장률 강화: 시중 유동성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

2025년 펀드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MMF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지난 해 2.8조 감소하며 연간 기준으로 5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던 MMF는 올해 들어 다시 시중 유동성이 대거 유입되며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27.7%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성장률인 +15.2%보다 12.5%p 더 높은 성장률이며 지난 해 같은 기간 설정액 대비(YOY) 로는 +9.1%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MMF 설정액 전년말 대비 46.2조가 증가해 +27.7% 성장하여 213.2조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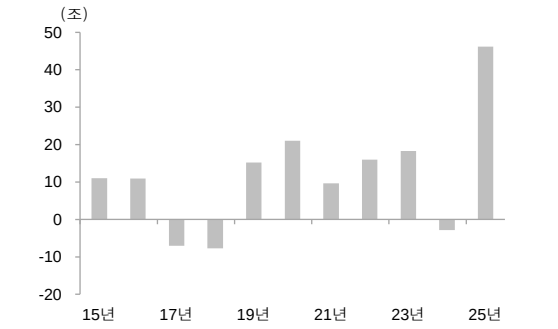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하여 시중 유동성이 급증한 가운데 특히 법인 MMF를 중심으로 시중 유동성이 대거 유입되어 2021년 들어 한때 사상 최고치 수준인 188.6조 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2년에도 연간 기준으로 약 16.0조 증가한 151.5조

대로 마감했다. 하지만 레고랜드 발 크레디트 이슈가 단기 자금 시장 경색으로 연결되며 10월말 기준 MMF의 YoY 성장률은 -8.8%로 역성장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아주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이 완화되고 채권 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가자 상대적으로 MMF의 매력도가 부각되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 이에 한해 동안 18.3조(+12.1%) 증가하여 169.8조로 마감했다. 2024년에는 연중 시중 유동성의 유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분기말 대규모 자금 유출이 나타나며 결국 연간 기준으로는 5년만에 연간 기준 감소세를 보이며 -1.7% 역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시중 유동성 자금이 대규모 유입 되었는데 특히 법인의 여유 자금이 많이 유입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11월말 기준 213.2조로 연초 이후 약 46.2조 증가하며 마감했으며, 지난 8월 5일 기준 233.9조로 한때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MMF 성장률 강화: 연평균 설정액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18.8조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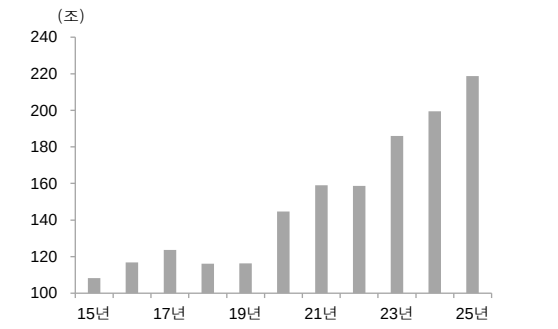
MMF의 계절성을 감안하여 연평균 설정액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는 연초 대규모 자금의 유입 영향으로 11월말기준 218.8조로 전년대비 +9.7%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참고로 지난 해에도 연평균 설정액은 한 해 동안 13.5조 증가하여 199.5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연말기준 MMF설정액은 계절성 영향으로 167.0조로 마감했었다. 이처럼 MMF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어 올해 연말까지 자금 흐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끝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처럼 풍부해진 유동성의 향방에 따라 향후 자산 가격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MMF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도표 40. 연도별 MMF 설정 원본 증감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41. 연평균 MMF 설정 원본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개인의 온라인을 통한 펀드 투자의 확대 이어져 → 온라인전용 펀드 설정액 규모는 한 해 동안 13.6조 증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49.6조 대를 기록

2025년 펀드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의 온라인을 통한 펀드 투자의 지속 확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컨택트가 우리 생활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면서 펀드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온라인을 통한 투자가 과거보다 활발하게 나타났었다. 이에 온라인 전용 펀드의 설정액은 2020년들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4.1조가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그 두 배 가까운 8.0조가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유입 강도는 완화되었지만 연간 약 2조 원 내외 증가하여 2023년에는 온라인전용 펀드의 설정액 규모가 28조 대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2024년들어 유입세가 강해지며 한해 동안 8.2조 증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36.0조 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 더욱 강해지며 연초 이후 13.6조 증가한 49.6조 대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련의 사모 펀드 사태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기존의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한 오프라인 펀드 투자를 주로 해왔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행태가 변화되어 가는 중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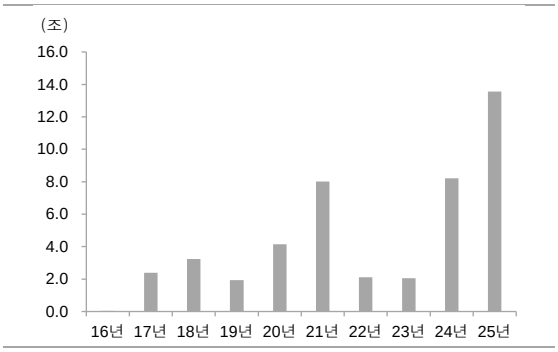
한편 2023년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형 펀드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반해 공모형 온라인 펀드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펀드 규모 증가는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대상과 투자시기를 정하여 투자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직접 투자 규모 급팽창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펀드 판매 관련 규제 강화(고난도금융상품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을 통한 펀드 투자 규모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펀드 투자 중 61%를 넘어서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형 펀드 투자 규모 중 온라인 전용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져 2019년 13.3%에서 2020년 18.9%(+5.5%p), 2021년 31.0%(+12.1%p), 2022년 39.9%(+8.9%p), 2023년 43.6%(+3.7%p)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에는 증가세가 강화되며 결국 51.2%(+4.5%p)로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형 펀드 투자 규모 중 온라인 전용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성장세가 더욱 강화되며 11월말 기준으로 61.2%(+10.1%p)로 60%대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전용 펀드(클래스) 설정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펀드가 76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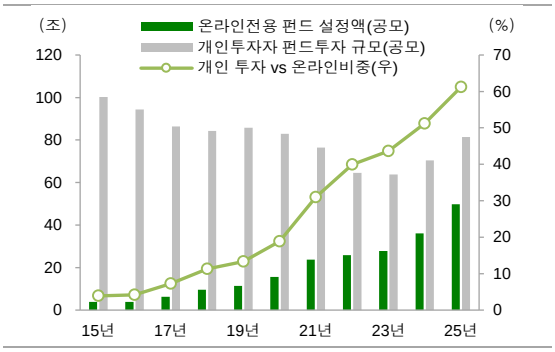
기록할 정도로 많아졌으며 심지어는 순자산 기준으로는 1.1조 원을 넘어서는 펀드도 존재한다. 이에 향후 개별 운용사와 판매사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의 펀드 판매사는 온라인 판매채널 강화와 판매 채널 인프라 개선 등 온라인 판매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42. 온라인 전용 펀드 연도별 설정액 증감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43. 개인투자자 투자 규모 vs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액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ETF, 퇴직연금 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배당주 펀드, Gold 펀드 등으로 연초 이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됨

이외에도 2025년 테마 유형별 연초 이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순유입 상위 10개 유형 중 연초 이후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동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해외주식형 ETF, 국내 채권형 ETF, 국내 주식형 ETF, 기타 ETF 등 다양한 ETF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순유입 상위를 차지했다. 또한 퇴직연금 관련 펀드, 라이프사이클 펀드 등으로도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연초 이후 자금 유입 상위에 올랐다. 또한 배당주 펀드가 국내외 배당주 펀드를 모두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연초 이후 6.4조 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Gold 펀드가 국제 금 가격의 강세와 함께 3.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레버리지 펀드는 증시 강세로 차익 실현성 환매가 쏟아져 대규모 자금 유출이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이 상장되고 IPO제도 변화에 적응하면서 일부 종목이 강한 상승세를 보인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간 1.2조 원 이상 자금이 유입되었던 공모주 펀드가 올해 들어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대어급 종목이 상장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정부의 새로운 IPO제도 도입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몇 년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었던 ESG(주식) 유형은 지난 해에 이어 순유출을 기록했다.

도표 44. 테마 유형별 연초 이후 자금 흐름 상/하위 To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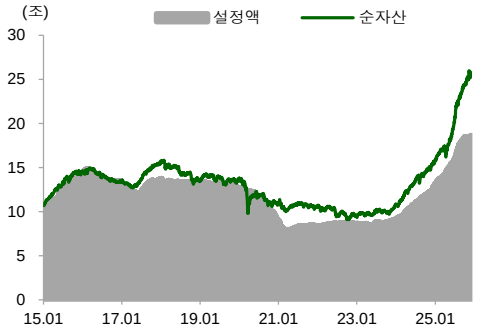
테마	설정액 (억)	순자산 (억)	수익률(%)			자금 흐름(억)		
			YTD	1Y	3Y	YTD	1Y	3Y
ETF(해외주식)	455,917	901,321	17.05	24.50	82.89	**236,476**	277,881	452,805
ETF(국내채권)	630,556	671,629	1.88	2.14	12.36	**174,086**	181,261	535,526
ETF(국내주식)	694,716	879,621	65.33	58.18	65.91	**161,871**	173,812	190,409
ETF(기타)	390,623	402,017	6.52	6.43	13.91	**121,025**	123,866	275,232
퇴직연금(공모)	370,255	542,982	14.38	14.76	37.61	**82,449**	89,834	144,769
배당주펀드	186,460	258,418	21.61	18.89	44.82	**63,665**	71,837	106,466
라이프사이클	170,155	267,755	13.14	13.28	38.11	**48,886**	54,359	77,114
금펀드	23,844	53,044	57.20	62.10	129.93	**31,838**	32,455	35,651
ESG(채권)	67,201	69,846	2.91	3.42	17.21	**28,315**	28,800	43,401
원자재펀드	25,796	50,032	49.54	51.85	86.82	**24,599**	25,118	24,615
인프라펀드	2,113	3,202	10.37	10.66	30.29	**-822**	-873	-1,686
코스닥벤처펀드	2,440	4,827	35.24	35.09	50.80	**-1,078**	-1,212	-5,898
연금저축	148,839	221,590	22.06	22.17	42.88	**-1,206**	152	-948
4차산업	8,358	14,734	17.52	20.14	60.04	**-1,846**	-2,154	-6,526
컨슈머(소비재)	7,276	17,830	13.46	15.68	56.76	**-2,696**	-3,277	-11,047
소장펀드	4,092	6,174	48.76	44.78	49.49	**-2,837**	-2,920	-5,702
녹색성장펀드	7,006	13,147	58.16	53.70	51.89	**-3,813**	-4,015	-12,274
ESG(주식)	10,531	22,227	57.69	53.62	71.33	**-6,540**	-6,584	-18,499
공모주펀드	30,028	38,319	8.17	8.23	22.34	**-10,146**	-13,396	-12,201
레버리지	89,660	105,726	115.82	104.13	124.28	**-34,452**	-28,076	-19,513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공모형 펀드 대상 ,
단위: 억 원, 2025-11-28, YTD 자금 흐름 기준 정렬

2025년에는 해외 배당주 뿐만 아니라 국내 배당주 펀드로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됨 → 국내 배당주 투자의 경우 주로 배당주 ETF로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액티브 배당주 펀드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유출되는 상반된 모습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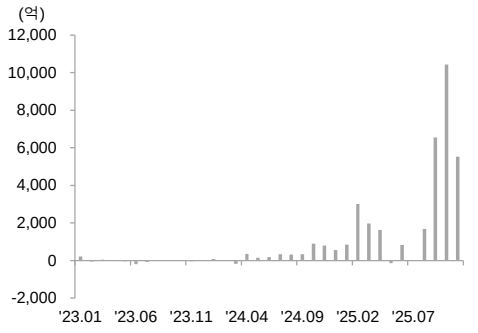
이중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특징은 고금리 지속과 글로벌 증시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배당주 펀드(테마유형)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 고배당주 펀드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커버드콜 전략이 결합된 ETF나 다우존스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가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 한편 국내 배당주 펀드의 경우 새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배당 세제 개편 등으로 국내 고배당주 ETF 등으로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일부 규모가 크고 오래된 전통적 액티브 고배당주 펀드에서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도표 45. 배당주 펀드(테마유형) 설정액 및 순자산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46. 배당주 펀드(테마유형)로의 월별 자금 흐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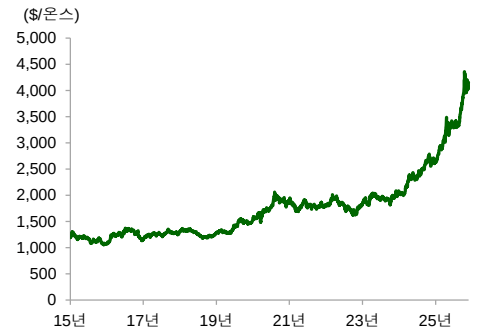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국제 금 가격의 강세 영향으로 GOLD 펀드로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됨 → 금 현물 시세를 추종하는 ETF로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며 금 펀드 설정액 증가를 이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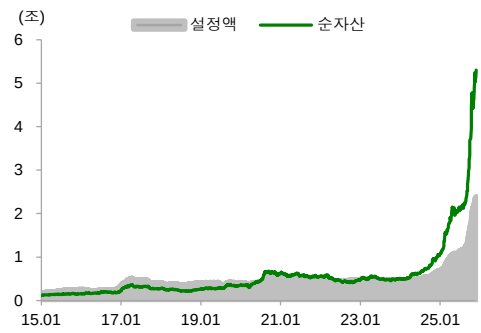
또한 국제 금 가격의 강세 영향으로 GOLD에 대한 투자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투자 수단의 하나로 GOLD 펀드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며 설정액이 연초 이후 3.1조 원 이상 증가했다. 연초 온스당 2,630달러 대로 시작한 국제 금 가격은 11월말 기준 4,150달러를 넘어서며 +58%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안전 자산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 등 아시아 및 신흥국 중앙은행의 매수세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 연준의 완화 사이클 속에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 및 거시 경제 불확실성 해지 수요 유입과 특히 ETF, 파생상품 등 투자 수요 유입이 더해지며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GOLD 펀드 중 금 현물 시세를 추종하는 ETF로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며 금 펀드 설정액 증가를 이끌었다.

도표 47. 국제 GOLD 시세 추이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48. GOLD 펀드 설정액 및 순자산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2)2026년 펀드시장 전망

2026년 펀드시장은 자산시장의 흐름에 따라 개선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당사는 2026년 국내 주식시장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3분기 말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을 겪었던 만큼 내년도 초까지는 업종 순환매 속 지수 상승 각도가 완만해질 것이나, 통상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2년 이상은 지속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식은 언제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나 2026년에는 AI 혁명으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점쳐지는 만큼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반도체를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선거를 앞 둔 정부 정책 모멘텀뿐만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도 강세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2026년 펀드시장 전망: 1) 다양한 신상품 출시 등으로 ETF의 성장 강화, 2) 연금 관련 펀드시장 성장 지속(TDF 포함) 3)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게 받고 있는 배당주 펀드뿐만 아니라, ESG 펀드 유형, 목표전환형 펀드도 성장 전망 4) 사모 펀드, 해외 펀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 영역 보다는 주식형, 재간접형, 채권형, 혼합자산형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5) 정부 정책 관련 상품과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특히 퇴직연금 제도 변화 등에 관심을 가질 것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인 국내 ETF시장은 내년에도 다양한 투자 Theme ETF, Active ETF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연금 관련 상품은 점점 더 펀드시장의 핵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폴트 옵션의 주요 상품인 TDF, EMP 등의 상품은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적립금 증가와 동반하여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증가세를 보였던 배당주 펀드는 연말로 갈수록 정부 정책 기대와 본격적인 배당 시즌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정부 정책 기대감과 바뀐 제도 등으로 인해 국내 배당주 펀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에는 특히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주주관여 펀드, 주주행동주의 펀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면서 ESG펀드도 개선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목표전환형 펀드도 변화하는 투자 환경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해외 펀드와 사모 펀드 시장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 영역의 유형 보다는 주식형, 재간접형, 채권형, 혼합자산형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내년 연말로 갈수록 시장의 여러 우려가 점차 완화되며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 영역도 일부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관련 상품과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먼저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펀드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향후 추진 경과와 진행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가 펀드시장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인터벌 펀드 등 다양한 펀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TF는 국내에 도입된 이래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해옴 → 2026년에도 성장을 이어갈 것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2026년에도 ETF는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TF는 국내에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다. 최근 몇 년을 살펴보면, 2023년 ETF의 순자산 총액은 글로벌 자산시장의 상승, 투자 심리 회복 특히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기조 변화 기대감과 함께 채권형 또는 채권 액티브형 등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결국 전년말 대비 무려 54.2% 증가해 121조 원을 돌파했다. 또한 ETF 상장 종목수는 812개로 신규 상장도 활발해 2023년 한 해 동안 146개가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증가한 133개 대비 10%p 많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내와 해외 액티브 ETF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며 ETF시장 성장을 주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 채권 관련 액티브 ETF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해 큰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해외 투자 ETF, 만기가 있는 ETF, 채권형 ETF, 금리형 ETF 등 다양한 ETF가 출시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ETF 순자산 총액은 전년말 대비 43.4% 증가해 약 173.6조 원, 상장 종목수는 연초 이후 123개가 증가한 935개를 기록

2024년에도 ETF의 순자산 총액은 인공 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테크주의 강세 속에 해외 주식형 ETF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채권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결국 전년말 대비 43.4% 증가해 약 173.6조 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또한 ETF 상장 종목수는 연초 이후 123개가 증가한 935개로 신규 상장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특히 해외 주식형 ETF가 S&P500, 나스닥, 다우존스 등 미국 대표 3대 지수를 추종하는 다양한 ETF 상품이 출시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해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해외 주식형 ETF의 순자산 총액이 국내 주식형 ETF를 넘어섰다.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액티브 ETF, 금리형 ETF 등 국내외 채권형 ETF도 다양하게 출시되며 성장했다.

2025년 11월말 ETF 순자산 총액은 전년말 대비 100조 원 이상 증가한 +65.0% 성장하며 약 286.3조 원을 기록함, 상장 종목수는 연초 이후 113개가 증가한 1,048개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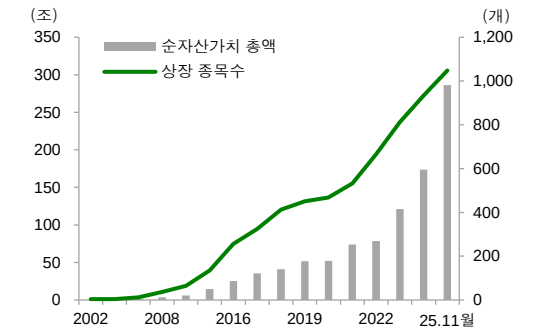
2025년에도 ETF의 순자산가치 총액은 인공 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테크주의 강세 속에 국내외 주식형 ETF와 시장 변동성 확대와 금리 추구 성향 강화 등으로 채권형 ETF 특히 파킹형 또는 금리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286.3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시장의 조정 시기 마다 저가매수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 해 동안 100조 원 이상 증가해 결국 전년말 대비 +65.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ETF 상장 종목수는 연초 이후 113개가 증가한 1,048개로 신규 상장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지난 해에는 해외 주식형 ETF의 순자산 총액이 국내 주식형 ETF를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새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내 증시가 초강세를 보이자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국내 주식형 ETF로도 대규모 자금이 몰리면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국내 주식형 펀드 순자산 총액 중 국내 주식형 ETF의 순자산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해말 57.0% 에서 64.3%까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액티브 ETF도 다양하게 출시되며 올 해 한 해 동안 19조 넘게 성장했다.

2026년에도 다양한 ETF의 출시와 함께 ETF 관련 제도적 지원이 있다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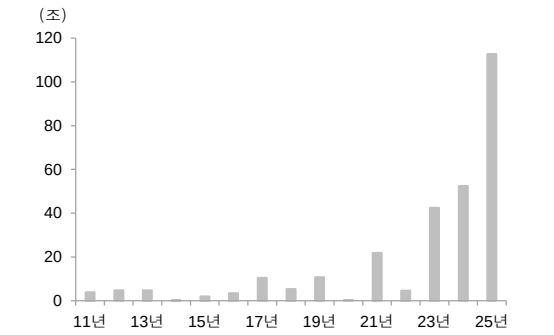
내년에도 다양하고 트렌디 한 투자 아이디어를 담은 ETF가 다수 소개되며 ETF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은 해외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를 비롯해 액티브 ETF의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2021년 거래소에서 검토 의견을 밝힌 다양한 ETF 관련 제도적 지원이 가시화된다면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도표 49. 국내 ETF의 순자산가치 총액 및 종목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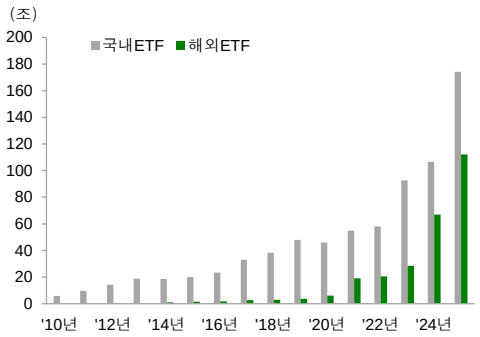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50. ETF 연간 순자산가치 증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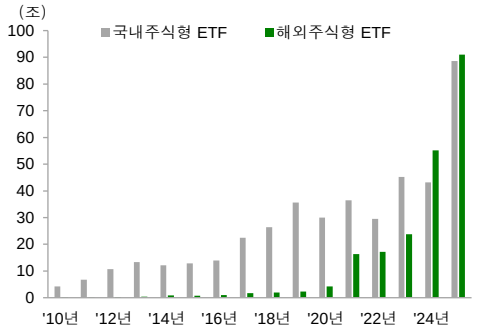
자료 : KRX,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51. 국내 ETF vs 해외 ETF 순자산가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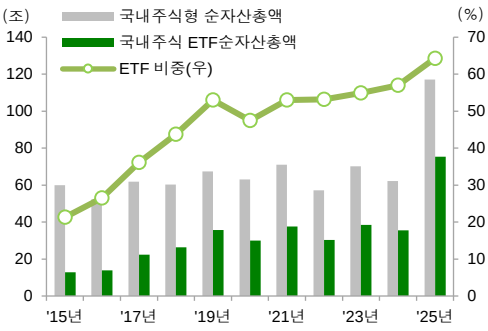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52. 국내 주식형 vs 해외 주식형 ETF 순자산가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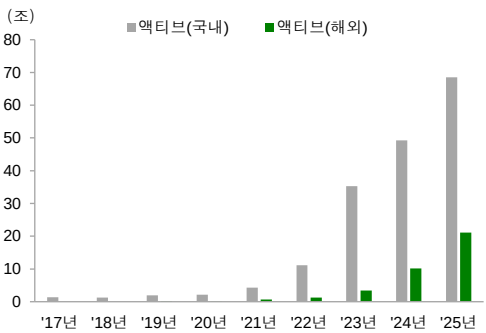
자료 : KRX,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53. 국내 주식형 펀드 중 ETF 비중 추이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54. 액티브(국내) vs (해외) ETF 순자산가치 추이



자료 : KRX,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퇴직연금 관련 펀드, TDF, EMP 펀드 등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

두번째 퇴직연금 관련 상품이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따른 성장세가 전망되는 만큼 2026년에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연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금 펀드 유형은 올해에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퇴직연금 관련 상품은 디폴트 옵션 제도의 본격적인 제도시행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준비 강화에 따라 성장세가 전망되는 만큼 2026년에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디폴트 옵션 제도가 본격 시행 이후 매년말 년초 디폴트 옵션 관련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최종 승인된 디폴트 옵션 상품 대부분 TDF, EMP, 자산배분형 등으로 구성되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2022년 7월 12일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정부는 규약 변경, 전산망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 간 제도 시행을 유예했었다. 이에 2023년 상반기까지는 일종의 시범운영 기간으로 이 기간이 끝나고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적립금이 많이 유입되는 연말과 연초를 지나면서 디폴트 옵션 관련 적립금이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와 관련된 상품도 동반하여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노동부에 최종 승인받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살펴보면 대부분 TDF, EMP, OCIO, 자산배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펀드 등 투자상품이 포함된 저위험·중위험·고위험 적립금의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또한 퇴직연금, 연금 저축 상품의 핵심 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는 TDF(Fn-Spectrum기준으로 테마유형의 라이프사이클로 분류)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었다. 국내 TDF 시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3년 고금리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펀드 관련 자금 유입이 감소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다시 자금 유입이 증가하며 성장세가 회복되었다.

디폴트 옵션 상품에 많이 포함된 TDF는 매년 자금이 유입되며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자금이 유입되어 설정액 기준 약 14.8조 수준까지 성장함

2025년 11월말 현재 총 19개 운용사에서 총 204개의 TDF 펀드를 출시하여 운용 중으로, 총 설정액은 약 14.8조, NAV는 24.2조 원 수준까지 성장했다. 편리함과 양호한 성과 등을 배경으로 2026년에도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TDF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지난 연말과 비교해 하나자산운용의 6개 빈티지, 한화자산운용의 4개 빈티지, 유진자산운용의 2개 빈티지, 다올자산운용의 1개 빈티지 등 총 4개의 운용사가 13개의 펀드를 상환하면서 처음으로 TDF 운용 중단에 들어간 곳이 등장했다.

Target Date별 설정액 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50대가 주로 투자하는 2030년 빈티지 TDF가 약 3.0조로 가장 규모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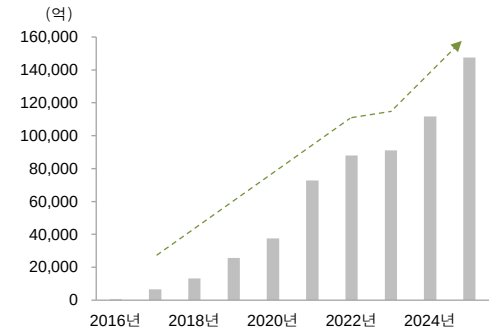
Target Date별로 올해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퇴를 앞에 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50대가 주로 투자하는 2030년 빈티지 유형의 설정액이 11월말 기준 약 3.0조로 가장 규모가 크다. 다음으로는 30대가 주로 투자하는 2045년 빈티지 유형도 약 2.2조 규모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2050년 빈티지 유형으로 약 2.0조 수준이다. 한편 지난 해 출시되었던 한투운용의 2080년 빈티지 펀드는

펀드의 유형을 변경하여 다른 자산배분형 펀드로 리브랜딩 되면서 관련 통계에서 빠져 2080 TDF 빈티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 키움자산운용에서 새롭게 2065년 빈티지 펀드를 출시하여 관련 통계에 포함되었다.

Target Date별 설정액 추이를 살펴보면 2060년 빈티지 TDF가 2025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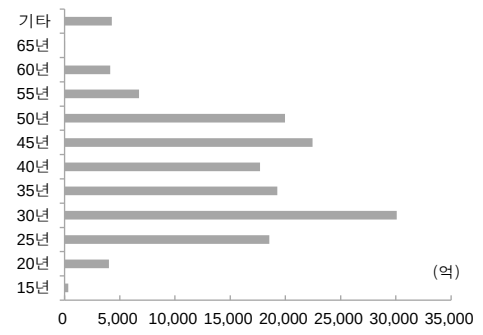
또한 Target Date별 설정액 추이를 살펴보면 2060년 빈티지 유형이 186.9% 성장하며 올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요즘 사회적 트렌드에 맞게 젊은 세대들이 미리미리 은퇴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55년과 2050년 빈티지 유형도 올해 들어 각각 104.1%, 73.2% 성장했다. 이처럼 향후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들의 자금 유입 속도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이미 Target date를 지난 2015년과 2020년 빈티지는 각각 -16.0%, -2.0% 감소했다. 또한 Target date가 올해인 2025년 빈티지는 +2.2% 성장에 그쳤다.

도표 55. 국내 TDF 설정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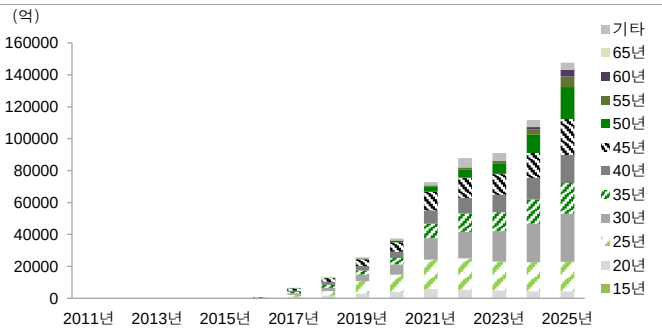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56. Target date별 TDF 설정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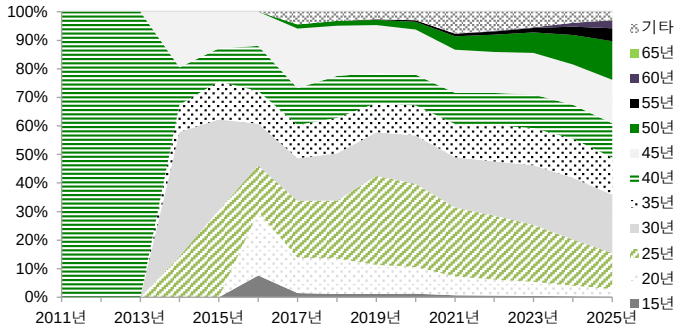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57. 국내 TDF의 Target Date별 설정액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58. 국내 TDF의 Target Date별 설정액 비중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또한 2022년 ETF의 높은 인기 등으로 인해 삼성, KB, 키움 등 3곳의 자산운용사에서 일부 TDF를 ETF로 상장하여 거래될 수 있도록 출시했었다. 올해 들어 미래에셋운용과 한투운용 2곳의 자산운용사에서 추가로 TDF ETF를 출시하여 이젠 5개 운용사에서 총 13개의 TDF ETF를 출시하여 운용 중으로 투자자들의 선택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시장의 확대 속에 거래의 편리성 등으로 향후 관심이 높아질 수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표 59. ETF로 출시된 TDF 설정액 및 수익률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1M	3M	6M	1Y	2Y
KBRISETDF203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09-20	75	1.12	5.88	11.76	11.08	31.99
KBRISETDF204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09-20	105	1.75	8.73	16.39	15.71	40.89
KBRISETDF20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09-20	455	2.08	10.41	19.19	18.69	46.65
미래에셋TIGERTDF2045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	2025-03-21	3,565	2.37	9.06	19.11	-	-
삼성KODEXTDF203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06-28	515	0.94	3.28	8.06	7.01	28.83
삼성KODEXTDF204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06-28	560	1.61	6.05	13.03	11.52	39.61
삼성KODEXTDF20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06-28	2,325	1.96	7.83	16.19	14.40	47.64
삼성KODEXTDF206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5-07-18	580	2.02	7.90	-	-	-
키움KIWOOMTDF203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06-29	45	1.73	8.67	16.08	11.89	37.29
키움KIWOOMTDF204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06-29	45	2.17	10.22	19.54	15.03	46.86
키움KIWOOMTDF20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2-06-29	50	2.21	10.75	20.90	16.30	49.45
한국투자ACETDF203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5-03-07	125	1.11	4.75	10.74	-	-
한국투자ACETDF20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5-03-07	265	2.29	9.63	19.28	-	-

단위: 억, %, 2025-11-28 기준,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펀드명 오름차순 정렬

2026년 배당주 펀드는 해외 배당주 펀드뿐만 아니라 국내 배당주 펀드도 높은 관심을 받을 것

또한 2026년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게 받고 있는 배당주 펀드뿐만 아니라 ESG 펀드도 높은 관심 속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목표전환형 펀드도 높은 관심 속에 신규 설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배당주 펀드의 경우 2025년과 유사하게 해외 배당주뿐만 아니라 국내 배당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명한 지배구조,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투자자 유인책 마련 등을 위해 1차·2차 상법 개정을 비롯해 세법 개정 등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향후 3차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과 같은 주주 친화적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에 발표된 배당 선진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새로운 배당 제도에 기반한 배당 절차가 시작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응을 하는 과정에 새로운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점점 더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배당금이 정해지고 배당금 수혜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간 비교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이 배당 성향을 상향 시키는 등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처럼 배당제도 변경에 따라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 배당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해외와 유사하게 변경된 새로운 배당 제도로 인해 외국인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내 배당주 펀드는 해가 갈수록 더욱 높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 정책 개선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또한 국내 기업들의 배당 정책 개선 트렌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업과 투자자들의 ESG 활동이 강화되며 기업의 배당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SG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Asset Owner와 일부 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ESG 활동이 활발해진데다가 소액 주주들도 주주권리에 눈을 뜨며 주주가치 제고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ESG 활동 강화 등에 의한 주주환원 정책 강화는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내 배당주 펀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대형 연기금과 Asset Owner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과 관련해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새로운 정부와 여당이 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다수의 정책을 도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이와 맞물려 더욱 효과가 높아질 것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SG 펀드 시장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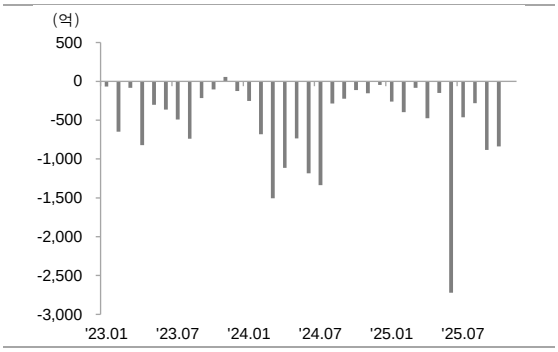
한편 내년에는 ESG 펀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UNFCCC COP26을 전후로 ESG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가 속에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ESG 펀드는 2021년 한때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었다. 2022년 이후 ESG에 대한 여러 도전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그래도 일반 펀드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플레이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의 고강도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 러우 사태와 중동 사태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ESG를 둘러싼 정치적 반발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 ESG 펀드는 2021년 대비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ESG 펀드는 글로벌 펀드시장에서 여전히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이다.

올해 들어 국내 ESG 펀드는 채권형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연초 이후 2.1조 원이 순유입 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ESG(채권) 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ESG 펀드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ESG(주식)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차익실현성 환매 출회 등으로 23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며 글로벌 ESG 펀드 시장과 동일하게 ESG(채권)과는 상반된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에는 ESG(주식) 펀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형 연기금 및 Asset Owner의 보다 적극적인 ESG 활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연내 발표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대형 연기금 및 Asset Owner, 자산운용사 등은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행점검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내년 상반기에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전면 개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16년 제정 이후 10년 만의 개정으로 적용 자산 유형을 채권, 비상장 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의 책임도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다수의 정책을 도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스튜어드십코드 개편과 이행점검 등과 맞물려 더욱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일부 행동주의 펀드와 PEF 등을 중심으로 움직였으나 내년 이후로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및 이행점검 등의 영향으로 대형 연기금 및 Asset Owner와 자산운용사 등도 나서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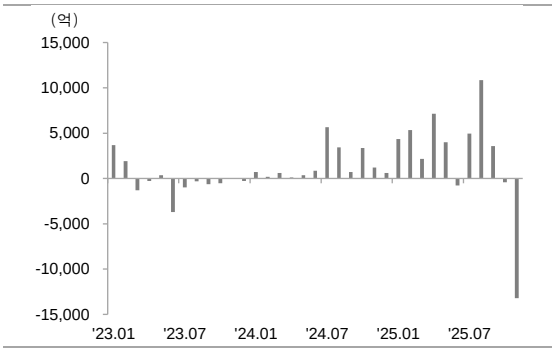
주주관여 전략을 표방하는 ESG 펀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상법 개정과 새로운 정책 도입된 이후 처음 맞는 2025-26 주주총회 시즌을 전후로 주주행동주의 펀드와 주주관여 전략을 표방하는 일부 펀드들의 활발한 활동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ESG(주식) 펀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60. ESG(주식) 펀드로의 월별 자금 흐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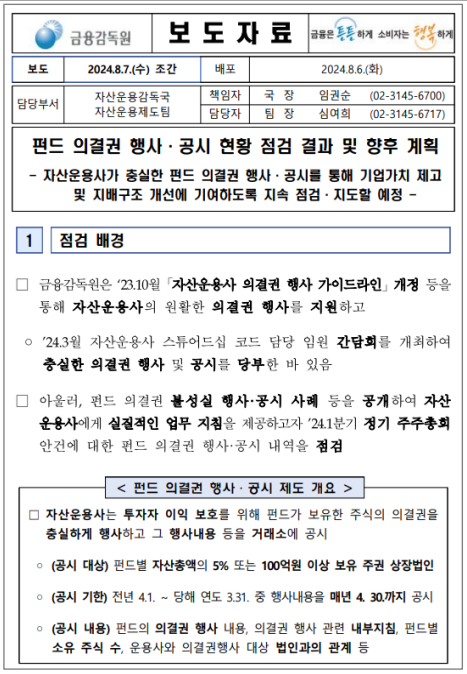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61. ESG(채권) 펀드로의 월별 자금 흐름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62.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관련 문제 제기 – 이행점검 예정



금융감독원 | 보 도 자 료 |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4.8.7.(수) 조간	배포	2024.8.6.(화)
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	책임자	국 장 임권순 (02-3145-6700)
		담당자	팀 장 심여희 (02-3145-6717)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 자산운용사가 충실한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도록 지속 점검·지도할 예정 -

1 점검 배경

□ 금융감독원은 '23.10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 '24.3월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당부**한 바 있음

□ 아울러, 펀드 의결권 **불성실 행사·공시 사례** 등을 **공개**하여 **자산운용사**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자 '24.1분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

<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제도 개요 >

□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 등을 **거래소**에 공시

○ **(공시 대상)** 펀드별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

○ **(공시 기한)** 전년 4.1. ~ 당해 연도 3.31. 중 행사내용을 **매년 4. 30.까지** 공시

○ **(공시 내용)**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운용사와 의결권행사 대상 **법인과의 관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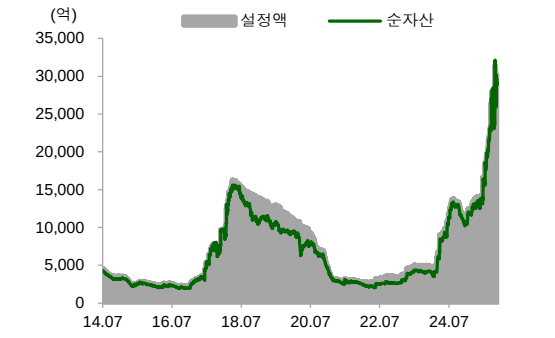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대체투자 영역 상품의 부진 등으로 일부 크레디트 채권, 커버드콜 전략의 펀드, 레버리지 전략을 활용하는 펀드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외에도 목표전환형 펀드도 이러한 투자 대안으로서 검토되며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됨

최근 금융 시장에서는 하이싱글 수준의 중수익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기존의 금융상품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대표적인 상품군인 부동산 펀드와 같은 대체투자 유형의 펀드와 PF 채권 등의 상품이 최근 시장의 부정적 운용 환경과 부진한 성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실망과 경계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대안 상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희망하는 성과를 제공하는 일부 크레디트 채권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커버드콜이나 레버리지와 같이 파생상품 전략을 활용해 추가 성과를 추구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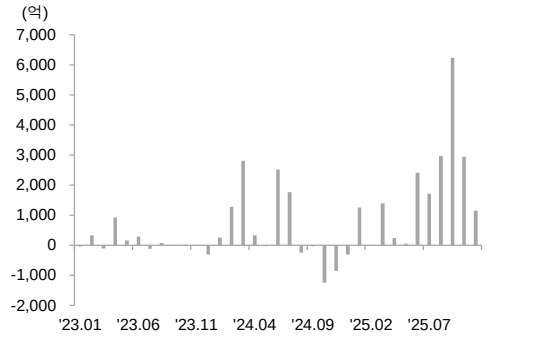
특히 지난 해 이후 이러한 상품군들이 확장되며 목표전환형 펀드로도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싶을 때 투자하는 상품으로 다양한 자산군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전략 채택이 용이하여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품군이다. 특히 국내외 증시의 강세 영향으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목표전환형 펀드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서도 1.7조 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에 대한 긍정적 투자 심리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AI 를 비롯한 테크주 버블 논란 등이 시장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다. 이는 오히려 목표전환형 펀드의 설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26년에도 목표전환형 펀드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63. 목표전환형 펀드 설정액 및 순자산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64. 목표전환형 펀드 월별 자금 흐름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2025년 해외 펀드 성장률 회복세 보여 ← 대체투자 유형이 아닌 해외 증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해외 주식형, 해외 재간접형 등의 유형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됨

또한 지난 해 해외 펀드는 그동안 해외 펀드 성장을 주도해 왔던 해외 대체 투자 유형이 아닌 해외 주식형 펀드, 해외 재간접형 등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되어 기존 성장 궤도로 상당 부분 회복하는 강세를 보였다. 올해에도 해외 주식형 펀드, 해외 재간접형 등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펀드 시장은 이른바 Home-bias로 인해 국내에 투자하는 펀드(이후 국내 펀드) 설정액이 835조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이후 해외 펀드)의 457조보다 두배 가까이(83%) 크다. 하지만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2022년 사이 국내 펀드 설정액 증가율은 평균 7.9% 증가한 반면 해외 펀드는 평균 17.7%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었다. 특히 2019년에는 해외 펀드가 무려 33.0% 성장했는데 성장률뿐만 아니라 설정액 증가 규모로도 한 해 동안 49.4조 증가하며 49.2조 증가한 국내 펀드 보다 0.2조 더 증가하기도 했었다. 이는 해외 펀드 황금기였던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의 성장이며 동시에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외 펀드가 국내 펀드 보다 설정액 증가 규모도 큰 한 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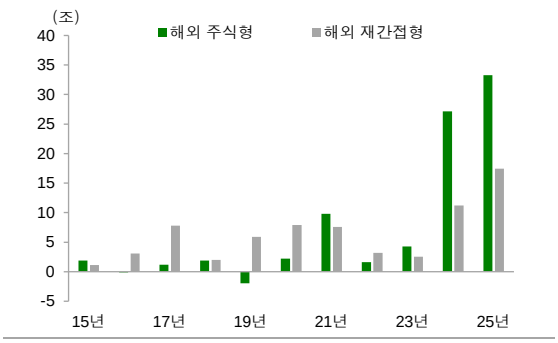
2020~2023년 해외 펀드 성장률이 둔화됨 → 해외 펀드 내 비중이 큰 특별자산형, 부동산형 등의 유형이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의 부진 때문이었음

하지만 2020년 이후 해외 펀드 성장률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0년에는 12.6%, 2021년에는 17.1%, 2022년에는 9.0%, 2023년에는 8.7% 성장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22년 이후 성장률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던 2020년 보다도 둔화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2023년에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해외 펀드의 성장세가 부진해진 이유는 해외 펀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혼합자산형 등의 유형이 코로나로 인한 실사 어려움과 대체시장의 부진 등으로 인해 신규 설정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던 2022년 이후에도 해외 대체투자 시장의 부진 영향으로 특별자산형, 부동산 등의 유형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해외 펀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6년에도 해외 펀드는 성장세 이어갈 것 ← AI등 빅테크에 대한 관심,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해외 증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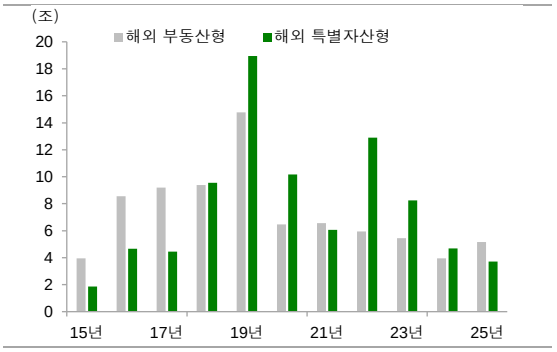
다행히 지난 해에는 해외 증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해외 주식형, 해외 재간접형 등의 유형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직전 년도 대비 두배 이상인 20.0% 성장해 해외 펀드성장율이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로 해외 주식형 ETF를 비롯해 관련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며 해외 주식형 펀드 증가 규모는 2007년 이후 최대 수준인 27.1조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져 해외 주식형과 해외 재간접형을 중심으로 연초 이후 84.4조 증가하며 지난 해 보다 높은 22.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무역분쟁 우려 등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조정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된 데다가 AI 등 빅테크에 대한 관심,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 등으로 해외 증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AI를 비롯한 빅테크에 대한 관심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이와 같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AI를 비롯한 일부 테크주 버블 논란과 고공 행진해온 지수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조정 시기마다 나타났던 저가매수세 유입 트렌드로 인해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65. 해외 주식형/해외 재간접형 펀드 설정액 증감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66. 해외 부동산/해외 특별자산형 펀드 설정액 증감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사모 펀드 성장률 둔화 이유: 사모 펀드 관련 부정적 이벤트, 규제 강화 속에 국내외 부동산 시장의 부진 등으로 인해 부동산형, 특별자산형의 성장이 둔화되고 사모 MMF 등 일부 유형에서 대규모 순유출을 보였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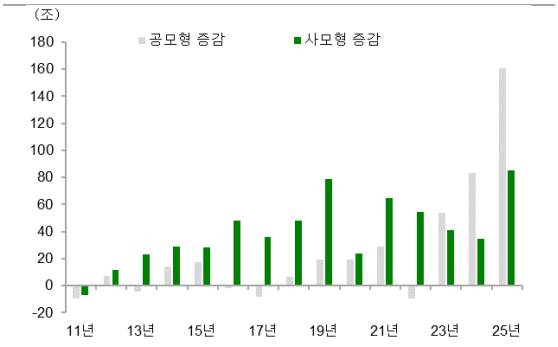
한편 2025년 11월말 현재 전체 펀드시장 규모는 1,292조로 이 중 공모 펀드 설정액은 573조이며 사모 펀드는 719조로 사모 펀드가 공모 펀드보다 약 146조 크다. 이에 따라 설정액 비중도 사모 펀드(55.7%)가 공모 펀드(44.3%) 보다 1.25배 가량 크다. 하지만 201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사모 펀드는 연이은 사모 펀드 부실 사태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데다가 코로나19로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2020

년 이후 성장률이 대폭 둔화되었다. 특히 지난 해 사모 펀드 시장은 +5.8% 성장에 그치면서 2020년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이처럼 사모 펀드 성장률이 둔화된 까닭은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 펀드 관련 여러 이슈 등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다가 소비자 보호법 시행, 사모 펀드 관련 금융 기관의 내부 절차 강화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 해 이후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황 여파로 사모 펀드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등의 성장이 둔화되고 여기에 특히 MMF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며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5년 사모 펀드 시장은 사모 채권형과 사모 재간접형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3.5%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임 → 2026년에도 채권형, 재간접형, 혼합자산형 등이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형, 특별자산형도 일부 회복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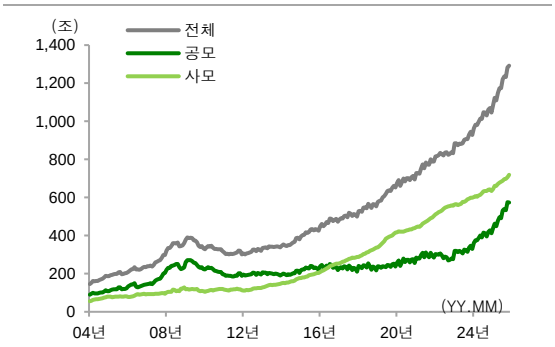
하지만 2025년 사모 펀드는 연초 이후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5.5조 증가해 +13.5%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특히 사모 펀드의 전성기라 불리던 2019년의 설정액이 79.1조 증가하면서 기록한 성장률(+23.5%)에 비해서는 낮지만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직전 3년 평균(+8.0%), 직전 5년 평균(+8.9%)의 성장률과 비교해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중심의 성장에서 채권형, 재간접형, 혼합자산형 등으로 성장의 축이 변경되면서 성장세를 일부 회복한 데다가 특히 지난 해 대규모로 자금이 유출되었던 사모 MMF 유형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2026년에도 올해처럼 채권형, 재간접형, 혼합자산형 등이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형과 특별자산형도 일부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사모 펀드 시장이 성장세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67. 공모형/사모형 펀드 설정액 연도별 증감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68. 공모형/사모형 펀드 설정액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69. 2025년 공모/사모 유형별 펀드 연초 이후 설정액 증감

구분	공모			사모			총합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주식형	40,210	31,969	**72,178**	-627	1,300	**673**	**72,851**
혼합형	710	3,118	**3,828**	760	132	**892**	**4,719**
- 혼합주식형	151	722	**873**	22	33	**55**	**928**
- 혼합채권형	559	2,396	**2,955**	738	98	**836**	**3,792**
채권형	29,607	2,624	**32,231**	18,279	925	**19,204**	**51,435**
MMF	25,002	990	**25,992**	20,216	-	**20,216**	**46,207**
파생상품	5,559	6,393	**11,952**	1,583	2,054	**3,637**	**15,589**
부동산	434	-219	**215**	8,871	5,376	**14,247**	**14,462**
재간접	1,100	8,048	**9,149**	42	9,427	**9,468**	**18,617**
특별자산	3,503	157	**3,660**	-544	3,561	**3,017**	**6,676**
PEF	-	-	**-**	1,325	-	**1,325**	**1,325**
혼합자산	402	1,073	**1,475**	5,382	7,495	**12,876**	**14,351**
전체	**106,526**	**54,153**	**160,679**	**55,268**	**30,238**	**85,506**	**246,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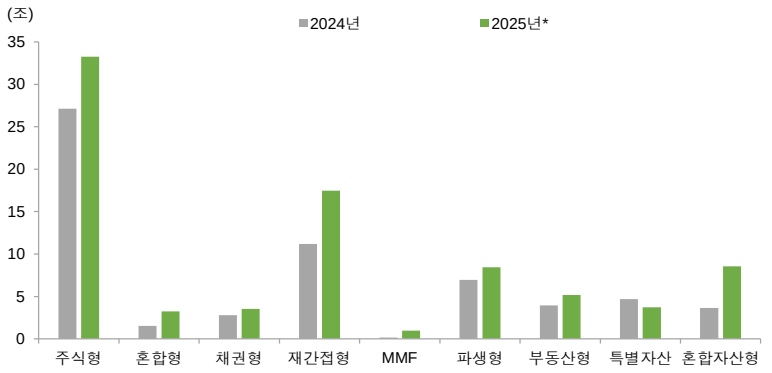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십억좌, 2025-11-28기준

도표 70. 2025년 공모/사모 유형별 펀드 연초 이후 설정액 성장률

구분	공모			사모			총합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주식형	80.3%	57.4%	**68.3%**	-5.3%	15.8%	**3.4%**	**57.9%**
혼합형	6.3%	75.8%	**24.8%**	6.3%	10.7%	**6.7%**	**16.5%**
- 혼합주식형	8.1%	66.2%	**29.7%**	0.3%	10.8%	**0.8%**	**9.7%**
- 혼합채권형	5.9%	79.2%	**23.7%**	13.0%	10.7%	**12.7%**	**19.9%**
채권형	47.0%	50.4%	**47.3%**	19.0%	20.0%	**19.0%**	**30.4%**
MMF	20.8%	101.1%	**21.5%**	44.1%	_	**44.1%**	**27.7%**
파생상품	13.1%	32.4%	**19.2%**	15.5%	21.0%	**18.2%**	**18.9%**
부동산	75.3%	-13.9%	**10.0%**	10.2%	6.6%	**8.5%**	**8.5%**
재간접	80.1%	34.5%	**37.0%**	0.3%	23.9%	**18.0%**	**24.0%**
특별자산	61.8%	55.0%	**61.5%**	-1.0%	4.0%	**2.1%**	**4.4%**
PEF	_	-	**-**	35.4%	_	**35.4%**	**35.4%**
혼합자산	18.3%	23.1%	**21.5%**	13.6%	31.2%	**20.3%**	**20.4%**
전체	**35.9%**	**46.9%**	**39.0%**	**14.7%**	**11.8%**	**13.5%**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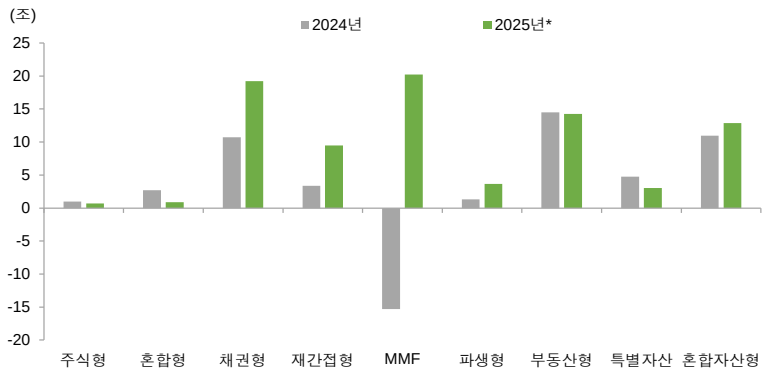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십억좌, 2025-11-28기준

도표 71. 해외 펀드 주요 유형별 설정액 증감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도표 72. 사모 펀드 주요 유형별 설정액 증감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내년에는 연준 의장 변경과 함께 금리 인하 재개와 같은 완화 정책이 기대되고 주요국의 선거 등으로 정부 정책 기대감이 존재 → 이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적응한 일부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부동산 투자 시장도 일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코로나19 이후 2023년까지 나타난 사모 펀드와 해외 펀드의 성장률 둔화는 공통적으로 유형 내 높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등 대체투자 영역의 성장률이 둔화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부동산 펀드 및 특별자산 펀드 등 대체투자 영역의 펀드는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며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 2023년 이후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며 개선될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해외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우려와 일부 미국 지역은행의 유동성 우려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성장이 둔화되었다. 이에 사모 대체투자를 주로 하는 Blackstone과 같은

초대형 운용사의 펀드에서도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는 등 운용 환경이 악화되기도 했었다. 다행히 지난 해 이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기준 금리가 인하 되며 다소 부담을 덜어냈지만 부동산 시장 내부적으로 쌓인 여러 우려와 부동산 시장의 규제 강화 등으로 개선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연준 의장 변경과 함께 금리 인하 재개와 같은 완화 정책이 기대되고 주요국의 선거 등으로 정부 정책 기대감이 존재한다. 이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적응한 일부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부동산 투자 시장도 일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 등 대체투자 유형의 펀드는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외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해왔던 시장이다. 이와 같은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투자를 위해서 장단기 자산배분 목표 등을 정해서 운용하는데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 경색 등으로 인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투자 집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중장기 목표 자산배분안과의 괴리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환경이다. 글로벌 IB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를 60/20/20 포트폴리오로 변경해야 한다는 등 대체투자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운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말로 갈수록 기존에 설정한 중장기 자산배분 목표 달성을 위해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악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오히려 수익 추구 기회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수적으로 바뀐 투자 기관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 등으로 인해 기존 성장률 궤도로의 회복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

이에 우선 우수한 site 및 우량 deal을 중심으로 투자 검토와 자금 집행이 진행되며 회복세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연말로 갈수록 기업과 해외투자자 등의 관심 증가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대체투자의 경우 악성 대체투자 물건의 해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적응 등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 해외 대체투자 시장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대체투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오히려 수익 추구 기회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동안 진행되어온 운용환경 악화로 인해 보수적으로 바뀐 투자 기관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 등으로 인해 기존 성장률 궤도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펀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도입이나 제도 개선 등이 발표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 특히 (퇴직)연금 제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마지막으로 펀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도입이나 제도 개선 등이 발표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특히 2,000조 원을 돌파한 (공적/사적)연금 시장에서 사적 연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퇴직연금 등의 제도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7조 원으로 3년 연속 +1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4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75.2조 원)이 전년 대비 +53.3% 증가하는 등 원금보장이 되는 '저축'에서 '투자'로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비중 추이는 2022년 11.3% → 2023년 12.8% → 2024년 17.5%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4년 중 연간수익률은 +4.77%로 최근 2년간 물가수익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연금수령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금액 기준 최초로 절반을 상회(57.0%)하는 등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이하, 'DB') 214.6조 원, 확정기여형·기업형 IRP(이하, 'DC') 118.4조 원, 개인형 IRP(이하, 'IRP') 98.7조 원 순으로, DC와 IRP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DC유형의 경우 2022년 25.6% → 2023년 26.5% → 2024년 27.4%로 증가하고 있으며, IRP유형은 2022년 17.2% → 2023년 19.8% → 2024년 22.9%로 증가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이 82.6%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DC와 IRP를 중심으로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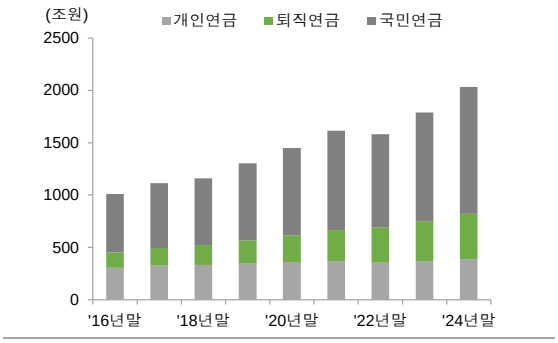
운용방법별로는 여전히 원리금보장형(대기성자금 포함)이 356.5조 원(82.6%), 실적배당형이 75.2조 원(17.4%)으로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DC와 IRP를 중심으로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은 DB유형은 6.8%(+2.1%p), DC 유형은 23.3%(+5.2%p), IRP유형은 33.5%(+5.6%p) 수준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투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펀드의 경우 TDF가 투자 상위를 차지함에 따라 퇴직연금 내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ETF의 경우 국내 시장보다는 주로 미국 주식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7조 원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

2024년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4.77% (원리금보장형이 3.67% vs 실적배당형이 9.96%)로 나타났으며 특히 운용주체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고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을 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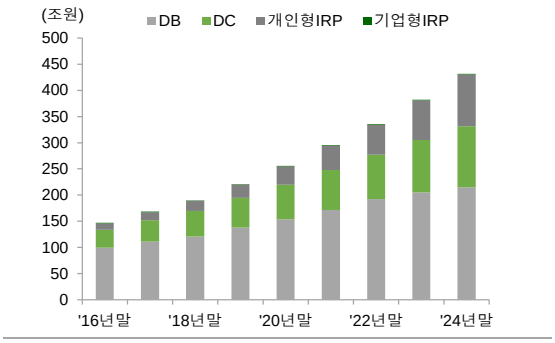
특히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4년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4.77%로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 +2.86%, +2.31%에 대비하여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운용방법별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이 +3.67%, 실적배당형이 +9.96%로 나타났다. 제도별 수익률은 DB +4.04%, DC +5.18%, IRP +5.86%로, 특히 운용주체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고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73. 연금(공적/사적) 적립금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4.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 →퇴직연금의 기금형 운용과 디폴트옵션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고민중

이러다 보니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 하도록 법을 개정해 퇴직연금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입하는 한편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용 제도)에서 예·적금을 제외해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제도를 현재 계약형 중심 운용에서 전문가가 통합해 운용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방법이기도 하다. 아울러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서 원금 보장형 상품인 예·적금을 제외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70%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 당국 간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퇴직연금의 기금화 논의가 본격 시작되고 운용자산의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펀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벤처·혁신 기업에 대한 민간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일반 투자자의 비상장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

또한 벤처·혁신 기업에 대한 민간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일반 투자자의 비상장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올해 8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폐쇄형 펀드로, 상장을 통해 투자자의 환금성을 확보하는 집합투자기구이다. 한국형 BDC 제도는 미국의 BDC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도입이 되었는데, 미국의 BDC는 신생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1980년 SBIA 제정을 통해 도입된 폐쇄형 투자회사로, 미국 투자회사법상 투자자보호의 유지를 전제로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가 완화된 투자기구이다. 2024년 말 약 $1,590억 규모, 50개 BDC가 상장되어 거래 중으로 알려졌다.

국내 도입되는 BDC는 동일기업에 대해 주식 10%, 주식 외 증권(+대출) 10%까지 각각 투자 가능하며,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최대 50%까지(공모펀드는 10%)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50% 이하 일정비율(시행령안 40%)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며,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상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에 더해, 운용주체의 책임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의무보유(시딩투자, 시행령안 5%),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와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기존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정책 자금이나 소수의 기관 투자자에 치우쳐 있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유망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나 BDC 도입을 계기로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고, 일반국민이 벤처·혁신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벤처생태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선 최근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보다 앞선 단계에 대한 투자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조기 정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반면, 비상장 기업 투자 특성상 사업 모델의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높은 투자 위험이 존재해 이와 관련된 투자자 교육과 투자자 보호에 치중하면 성장 속도는 더딜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펀드 재산의 일정 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폐쇄형(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인 인터벌 펀드 도입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이외에도 2021년 2월 공모펀드 경제력 제고방안 내 새로운 형태의 펀드 도입 차원에서 기획되어 세부안으로 언급되었던 인터벌 펀드 등이 도입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인터벌 펀드는 펀드 재산의 일정 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폐쇄형(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이다. 통상 폐쇄형 투자가 주를 이루는 대체 투자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SEC의 Rule 23c-3규칙을 채택하면서 1993년 공식 도입되었으며, Interval Fund Tracker에 따르면 프라이빗 크레딧(private credit) 및 기타 대체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참여 증가에 힘입어 2024년 말 기준 순자산이 950억 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미국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클리프워터(Cliffwater)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으로써 클리프워터가 운용하는 인터벌 펀드 형태의 해외 사모자산 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접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되기도 했다.

일반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규모가 3조 원 수준으로 알려진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

또한 최근 본격 가동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인 국민성장 펀드는 150조 원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이 중 일반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규모가 3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금까지 검토 중인 세제 혜택으로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검토하며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투자 방식, 상품 구조, 가입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확한 펀드 구조, 투자 기간, 상품 종류(사모/공모 등), 자산운용사, 가입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발표될 경우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볼 것을 추천한다.

또한 내년에는 어느 덧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펀드 상품 도입을 위한 관계 당국의 검토도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올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높은 관심과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 당시 투자자들 보였던 높은 관심 등을 상기해보면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손익 차등형 펀드 등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상품들이 펀드 시장의 성장에 마중물이 될 것

이외에도 상품 구조상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일정 조건하에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손익 차등형 펀드가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출시되며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해 이후 출시된 손익 차등형 펀드는 펀드에 대한 신뢰 회복 노력과 운용사로서의 운용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결합되어 나타난 펀드로 그만큼 업계의 절박함이 담겨 있기도 하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 출시되는 다양한 펀드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건상 가능한 운용사들은 이와 같은 펀드 출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IMA에 의해 펀드시장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올해 12월 신규 출시 예정인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에 의해서 펀드 시장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 자금 시장과 채권 시장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로 이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채권형 펀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MA의 기대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연 4~8%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성과를 제공하는 상품의 영역에 있는 ELF를 비롯한 일부 파생상품과 일부 대체투자 상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펀드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연준 의장 변경과 금리 인하 재개와 속도, AI버블 논쟁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를 비롯해 주요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 연착륙 여부, 글로벌 국지전 종료 여부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에 한 두 종목 또는 일부 업종에만 의존하여 투자하는 전략은 재고하길 권한다. 자산시장의 혼란 속에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려면 다수의 우량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해야 한다. 이때 전문가에 의해 투자되는 펀드도 투자 대상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추천하며 펀드도 한 두개의 펀드가 아닌 국내외 펀드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append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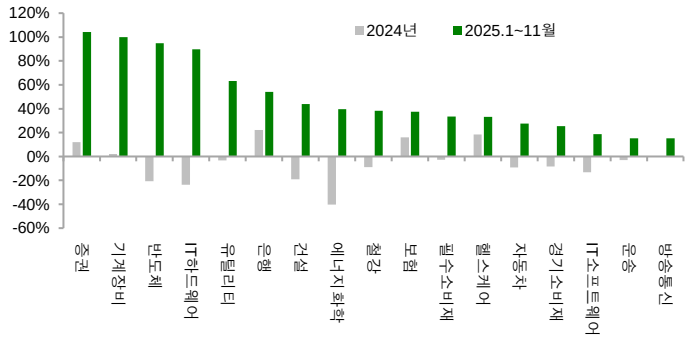
1. 국가별 주요 지수 등락률

지수	25년 11월말	3M대비	YTD대비	6M대비	1Y대비
코스피	3,926.59	22.85	47.06	63.64	56.77
코스피 200	554.00	28.30	55.46	74.31	67.14
코스닥	912.67	14.31	25.23	34.57	31.43
나스닥 종합	23,365.69	7.65	22.33	21.00	22.59
S&P 500	6,849.09	5.34	16.31	16.45	14.18
니케이 225	50,253.91	17.34	33.22	25.97	31.04
항셍	25,858.89	3.44	11.18	28.91	33.52
홍콩 H	9,130.18	2.39	8.13	25.24	31.85
대만 가권	27,626.48	13.99	29.35	19.93	23.89
상해종합	3,888.60	1.17	16.43	16.02	17.99
싱가폴 STI	4,523.96	6.35	15.65	19.44	21.05
인도 SENSEX	85,706.69	7.03	5.40	9.68	8.43
인도네시아 IDX종합	8,508.71	7.00	18.57	20.18	18.17
태국 SET	1,256.69	0.53	8.27	-10.25	-12.00
베트남 호치민	1,690.99	0.60	26.02	33.49	36.14
독일 DAX	23,836.79	-0.84	-0.84	19.73	22.71
영국 FTSE 100	9,720.51	5.46	11.40	18.93	17.38
프랑스 CAC 40	8,122.71	4.64	4.30	10.05	13.14
이탈리아 FTSE MIB	43,357.01	2.14	8.05	26.83	30.36
브라질 BOVESPA	159,072.00	12.78	14.53	32.25	27.66
러시아 RTS	1,077.78	-5.69	-2.22	20.66	47.14

*단위: pt, %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리서치센터

2. KRX업종별 수익률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기준

3. 주요 금리 등락률

금리	25년 11월말	3M대비	YTD대비	6M대비	1Y대비
콜금리(1일물중개거래)	2.51	0.90	-22.20	-81.30	-54.30
CD유통수익률(91)	2.80	27.00	17.00	-59.00	-49.00
CP(91일)	3.05	34.00	14.00	-50.00	-30.00
회사채(무보증3년AA-)	3.43	53.00	53.50	14.40	20.80
회사채(무보증3년BBB-)	9.28	53.90	63.70	22.40	25.40
통화안정(364일)	2.57	34.20	30.70	-12.80	-18.30
통안채(2년)	2.90	53.70	57.80	14.50	17.80
금융채(산금채1년)	2.84	35.30	36.20	-16.50	-27.70
국채(국민주택채권1종5년)	3.31	59.50	69.60	35.90	42.20
국고1년	2.52	27.30	24.70	-17.10	-28.50
국고3년(국채관리기금채3년)	2.99	57.50	67.70	39.50	35.30
국고5년(국채관리기금채5년)	3.18	60.00	70.90	41.40	49.00
국고10년	3.34	52.90	63.80	48.90	55.60
국고20년	3.31	45.10	62.70	43.60	57.10
국채금리_미국국채(10년)	4.02	-18.80	-45.50	-55.30	-23.90
국채금리_영국국채(10년)	4.44	-26.00	-27.60	-12.40	17.05
국채금리_일본국채(10년)	1.81	18.70	29.70	72.50	76.00
국채금리_독일국채(10년)	2.69	-0.64	14.43	32.93	56.68

*단위: bp, %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리서치센터

4. 주요 환율 등락률(WON/각 국 통화)

통화	25년 11월말	3M대비	YTD대비	6M대비	1Y대비
미국(달러)	1,469.00	6.03	6.84	-0.54	5.19
일본(100엔)	940.61	-0.16	-0.89	0.16	2.07
홍콩(H.달러)	188.68	6.16	7.53	-0.76	5.16
중국(위안)	207.71	6.74	8.63	3.11	7.82
싱가포르(S.달러)	1,133.36	4.94	6.28	4.76	8.98
인도(루피)	16.44	3.92	2.11	-4.64	-0.54
필리핀(페소)	25.08	3.00	1.13	-1.38	5.38
인도네시아(100루피아)	8.84	4.12	4.49	-3.91	0.23
태국(바트)	45.75	6.59	8.82	6.27	12.77
오스트레일리아(A.달러)	962.20	6.35	8.85	5.29	5.97
뉴질랜드(N.달러)	842.40	3.38	2.61	1.87	2.41
EU(유로)	1,703.45	5.30	9.72	11.35	15.55
영국(파운드)	1,944.59	3.90	5.01	5.20	9.73
스위스(S.프랑)	1,827.68	5.79	10.02	12.17	15.52
러시아(루블)	18.95	9.86	10.11	47.59	51.00
브라질(레알)	275.26	7.57	13.90	15.26	18.57

*단위: %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